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3일)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조계종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대웅보전 준공식을 거행했다. 분황사는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 처음으로 건립된 한국사찰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결실이다.

印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백만원력불사 결실

조계종, 5월 21일 부다가야서 준공식 봉행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대표단 비롯
물라상가 붓다팔라 스님 등 500여 명
전국비구니회 운영지원 보건소 착공도

인도 부다가야=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핵심사업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4년만에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부처님 성지를 참배하는 한국불자들의 수행 · 순례 구심점이 될 한국사찰 분황사가 대웅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대웅보전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산문을 연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보전의 낙성을 축하했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분황사 건립불사에 원력을 보탠 불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또 인도에서는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과 세계불교도연맹 IBC 회장 담마삐아 반떼, 장재복 주인도한국대사와 인도 정부와 비하르주 관계자, 인도 현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다.

분황사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오랜 원력에서 출발한 불사다. 35년 전 인도 성지순례에서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서원에 따른 것이다. 당시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을 중심으로 전세계 불교가 자국사찰을 건립해 불교문화 선양과 참배객 수행처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사찰은 전무했다. 이에 제36대 총무원장 취임 후 당시 원력을 되새겨 백만원력결집불사의 하나로 분황사 건립불사를 추진했다.

한국불교의 부다가야 거점도량인 분황사는 현지법인 물라상가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00평 대지에 조성됐다. 이날 낙성한 대웅보전은 263㎡ 규모의 한국 전통양식에 따라 건립됐다. 향후 964㎡ 규모의 2층 요사채 건물과 514㎡ 규모의 보건소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부처님 성지를 찾는 한국 스님과 불자들이 부다가야 대탑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수행할 때 머물며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나아가 인도 스님과 전세계에서 오는 스님과 불교도의 수계와 수행을 전담하는 수행도량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지 2000년이 지났다. 그동안 땅길과 물길을 통해 부처님 성지를 참배한 수행자와 세계 곳곳에 한국불교를 전하는 원력보살이 적지 않았지만, 분황사처럼 종단 차원에서 원력을 모아 하늘길을 열고 백련을 피워낸 바는 초유의 일대사인연"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무더운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처님 가피와 원력으로 질병 피해와 안전사고 없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분황이라는 사명은 푼다리카, 최고의 연꽃인 백련을 의미한다. 처염상정의 표상인 하얀연꽃이 이곳 부다가야에 만개했다"며 "분황사는 순례자를 위한 안식처이자 수행자를 위한 더없는 아란야인 동시에, 참배와 신행의 공간,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황사 건립불사를 현지에서 총괄한 붓다팔라 스님은 환영사에서 "거룩하고 역사적인 분황사 건립불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원력으로 시작됐고 설매 · 연취 보살과 통도사 청하문도회,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도회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불자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원만회향할 수 있었다"며 "조계종이 세운 분황사는 한국불교 세계화와 인도불교 복원불사의 중심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분황사 대웅보전 건립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에게 종정상을 대리수여한 데 이어, 박철수 대목수와 이연수(단청), 조명제(감리) 씨와 인도건설회사 다라싱 대표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진형 여진불교조각연구소장은 붓다팔라 스님에게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를 통해 부다가야에 건립된 분황사는 부처님 성지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근본도량이 될 것"이라며 "대웅보전 건립을 시작으로 수행관과 보건소 불사를 통해 인도 현지에서 포교와 복지를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황사 불사에 원력을 보태는 기금 전달도 잇따랐다.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각각 10만 달러를, 중앙종회 종책모임 금강회가 2만 달러를,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적석사 주지 제민 스님이 각각 1만 달러를 전달했다.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에 이어 보건소 착공식도 진행됐다. 보건소는 분황사 인근 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국비구니회가 운영 지원을 맡았으며, 보건소 건립을 위해 백천문화재단이 건립기금 3억 원을 후원했다. 보건소는 514㎡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진료실이, 2층에는 봉사자 숙소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분황사에 지역주민과 세계 순례자들을 위한 보건소를 건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봉사 및 후원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6·1 선거 후보들 불교계에 러브콜

콘텐츠 지원 강화 · 종교 화합 등
지역별 특색 맞는 정책제시 눈길

6 · 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단순한 사찰방문이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전통문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불교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 '전통문화 유지 및 지원'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통사찰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강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 △정부 공조사업에 대한 협조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경기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1968년 김신조 북한 특수공작원 남파 사건으로 폐쇄된 우이령길 전면 개방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월 24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서울시내 사찰이 변한다'며 불교 · 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불심에 읍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전통사찰 지목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및 지목변경 제한에 대한 개선 등 불교계 산적한 현안 해결 △전통문화재로서 사찰 재정비 △연등회 등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로 K-불교의 세계화에 기여 지원 △예산 신청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모범도시로 서울특별시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사찰 개보수 시 종교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후보는 제1공약으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해 청와대와 송현동, 종묘에 이르기까지 거대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해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인 종로의 면모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강맹훈 성동구청장 후보는 지역 천년고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옥수동 미타사를 중심으로 서울시 유적을 추진,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찾아와 역사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눔의집 대표이사에 성화 스님…"정상화 주력"

5월 25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경기도 광주=임은호 기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사무국장 성화 스님이 나눔의집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이사회가 정식 구성되면서 2년 간 지속돼 온 나눔의집 파행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눔의집은 5월 25일, 관내 교육관에서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성화 스님을 대표이사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덕림, 평중, 일운, 제민, 성화, 응묵, 희유 스님과 김현덕, 박종성, 이동성 사외이사 등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일운 스님이 임시 대표이사를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표이사 선출의 건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성화 스님은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20여 년간 헌신하며 복지계를 선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다수의 이사로부터 후보로 추천받았으며 단독 호선으로 만장일치 대표이사로 추대됐다.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고령의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나눔의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아픔의 역사를 가슴에 남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눔의집을 설립한 월주 스님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성화 스님은 "큰스님 유지를 받들어 많은 사찰, 스님, 불자,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 후원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어진 대표이사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화 스님은 현재 근무 중인 승가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눔의집에 상근하며 2년간 산적한 개선 사항들을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다.



복지 행정 경험 20년 전문가

"월주스님 유지 성실히 이행"

정식 이사 체제에 기대 커져

성화 스님은 불교계 대표적인 복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1996년 서울 대치동 선재어린이집 운영을 맡으면서 불교 복지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스님은 불교계가 위탁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을 역임하며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 행신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20여 년간 헌신하며 복지계를 선도해 왔다. 이런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 신문 올해의 종교인 대상, 대통령 표창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고양시장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대표이사 선출 후에는 △2021년도 법인 산하시설 결산(안) 심의 △나눔의집 정관개정(안) △2022년도나눔의집 법인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나눔의집 양로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나눔의집 사태는 2020년 5월, MBC PD수첩이 나눔의집과 관련한 내부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일부 직원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 학대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왜곡보도된 후 혼란에 빠지자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나서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를 강행했지만 일부 규정상 위반사항뿐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도 나눔의집 이사진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최종 결정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정식이사 체제 구축에 나선 나눔의집은 3월 10일 정식이사를 선임하면서 2년 만에 정상화의 물코를 텄다. 이후 5월 13일에는 사외이사 3인을 선출, 11명의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산적한 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 나눔의집 정상화는 물론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協, 선암사 탄원서 채택

5월 26일 본사주지협의회서 "조계종, 권한 제한 피해자" 사법부에 올바른 판결 요청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선암사 소송과 관련, 사법부에 "조계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소유권자로서의 행위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아 온 피해당사자"라며 올바른 판결을 청원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덕문)는 5월 26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제7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채택했다.〈사진〉

주지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교단의 쇠락과 자체규율이 흐트러짐을 극복하기 위해 구한말부터 정통교단 확립을 추진했지만 일제강점기 우여곡절 끝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을 설립해 단일교단을 창설했다"며 "해방 이후 현재 조계종까지 단일교단이 이어져 온 것으로 호남지역의 본산이었던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 일본불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운동은 정통교단 확립 운동으로, 그 산물이 국가·사회적 중재와 비구·대처 합의로 출범한 조계종이기에 교단 운영의 주요본산인 선암사 역시 조계종에 소속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지협의회는 선암사에 대해 "국가법률인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관할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침으로써 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았다"며 "이에 반해 태고종은 교단 내부의 한 구성원이던 대처측 일부가 탈종해 창종한 불교종단이므로,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태고종에 소속되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지협의회는 "이번 소송은 한국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1일 예정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 봉행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법회 봉행 △윤석열 정부의 불교공약 국정과제 반영 현황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세계 석학들 東亞 불교와 정치 논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5월 26일 국제학술대회

동국대 HK+사업 첫 성과

문헌학·계보학 분석 통해

韓 불교 글로컬리티 조명

대회서도 관련 논문 발표

동아시아 사회에서 불교와 정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 HK+사업단은 5월 26일 교내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불교와 정치'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선정된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HK+사업은 HK사업을 수행한 연구소 중 우수 사례를 선발한 것으로 동국대는 2027년까지 21억원을 지원받는다.

HK+ 연구사업의 주제는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glocality)-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으로 문헌 기반의 계보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특수와 보편이 조화된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의 특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나 해당 사업의 첫 성과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엔스 브로빅(오슬로대), 리처드 맥브라이드(브리검영대), 광싱(홍콩대), 일미 스님(예일대) 등 해외석학들이 대거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대 한국불교와 아스카(飛鳥)·하쿠오(白鳳) 시대 불교의 왕권'을 발표한 리처드 맥브라이드 교수는 "초기 일본 왕정의 등장과 불교와의 관계는 한국의 백제와 신라의 시도와 관습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며 "백제, 신라의 왕들이 불교적 상징성을 통해 초기 사찰을 세웠듯이 일본 최초 사찰인 아스카데라도 동일한 기능을 지녔고, 6세기 후반 한국 사찰의 방식에 의해 건립됐다"고 강조했다.

'〈화엄경〉이 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 엔스 브로빅 교수는 '한국의 화엄 전통과 범아시아적 배경 및 맥락(가제)'이라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화엄경〉 및 관련 텍스트들에 대한 디지털 다언어 에디션을 구축하고, 관련 도상학적 자료를 취합해 디지털 틀(digital framework) 안에서 문헌자료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정치, 종교사 안에서 화엄 사상과 교학 체계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브로빅 교수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근대 국가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최근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정치, 종교, 문화사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면모들(transnational aspects)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대통선사(大通禪師) 신수(神秀)와 당 황제들-당나라 옥천사(玉泉寺) 대통선사 신수의 비명(碑銘) 번역 및 연구(광싱, 홍콩대) △당대 수계(受戒)의 이중성(정완스님, 동국대) △균여전 다시 읽기-고려 광종의 불교정책에 대한 화엄행자 균여의 협력 그리고 갈등(석길암, 동국대) △누가 한국불교를 대표하게 되었는가 - 1920~1945년 식민지 조선의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경쟁(일미 스님, 예일대)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해 달라"

박보균 장관, 5월 25일 예방해 원행 스님 "문화정책 개선" 당부

박 장관 "백만원력불사에 감동"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을 받고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원행 스님은 5월 25일 박보균 장관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해 왔기에 큰 직책을 맡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통문화 발전에 남다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방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인도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을 기념해 종단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 순방을 다녀온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박 장관은 "인도 현지에서 보도된 관련 기사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35년 전 원장 스님의 원력이 씨앗이 되어 무수한 인연으로 이어진 연꽃들을 틔우고 이번에 분황이라는 큰 연꽃에 이르렀다는 점이 특히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이야말로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장면 하나하나에 담긴 백만원력의 힘을 실감하면서 여러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분황사 건립불사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며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재차 당부했다. 총무부장 삼혜 스님도 "특히 전통사찰들이 중복규제와 서로 상충하는 각종 법령들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전통사찰은 자부담율이 20%로 책정돼 부담이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성도지 마하보디대탑서 '환희'의 고불식 봉행



분황사 낙성을 하루 앞둔 5월 20일 마하보디 사원에서 고불식을 봉행하는 모습.

조계종 대표단 백만원력 인도순례 현장

5월 21일 분황사 준공 위해
5월 17~24일 6박 8일 일정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자에
분황사 건립 불사 후 첫 선
부처님 성지 찾아 약식 법회

인도=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가 산문을 열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21일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을 위해 5월 17일부터 24일 일정으로 대표단을 꾸려 인도로 향했다. 이번 순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중단됐던 해외성지 순례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제36대 총무원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성과로 분황사 건립불사 현장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인도 순례의 메인법석은 분황사 대웅보전 봉불식과 낙성식이 예정된 5월 20~21일 이틀간 집중됐다. 조계종은 5월 20일 오전 8시(현지시간) 준공을 앞둔 분황사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복장·점안의식 및 봉불식을 거행했다.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 대중들이 분황사 불사현장을 방문해 직접 참배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분황사 건립불사는 지난 2019년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시작돼 사부대중의 원력을 토대로 2020년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토식과 착공식 등 일련의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불자들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이날 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분황사 대웅보전에는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안치됐다. 분황사 대웅보전에 안치된 주불은 석가모니불, 협시불은 선(禪)과 교(敎)를 대표하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좌상으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입상으로 조성됐다. 수인은 부다가야 지역 불상의 주류형식인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따랐다. 주재료는 청동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불상 조성 시 목재를 선호하지만, 인도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다. 인도는 건기때 최고기온이 58℃에 육박하며 우기에는 습도가 높아, 목재는 보존상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처님 복장에는 불상조성문과 건립불사에 원력을 보탠 시주동참자 및 종단 소임자 명단, 〈화엄경〉, 한문과 한글 〈금강경〉, 무구정광다라니와 불자들이 직접 사경한 사경문 등이 봉안돼 의미를 더했다.

불복장·점안의식은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과 국장 정수·정묵 스님이 맡았다. 타종과 의식에 대한 설명, 신묘장구대다라니·진언 독송 등으로 진행된 의식은 사부대중의 원력을 사경집에 담아 봉안하는 과정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점안의식에서는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불상 조성기를, 종회의장 정문 스님이 법회연유문을, 교구본사를 대표해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이 화현출현문을 낭독했다.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마하보디 사원 내 대탑에서 봉행한 고불식은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원력을 이어가는 법석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고불식은 부처님 성도지에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건립한 분황사 건립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마하보디대탑 앞 기도처에서 육법공양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고불문 등으로 분황사 창건의 의미를 기렸다. 특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 나무 아래서 〈금강경〉을 독송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고불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다가야는 사바의 성지가 되어, 수많은 구도자들이 위법망구로서 그 숭고한 순례역사의 말석에 조계종 종도들이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제 분황사는 순례자를 위한 안식처이자 수행자를 위한 아란야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이날 고불식에 이어 마하보디대탑을 탑돌이하며 분황사를 중심으로 한 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원하기도 했다.

이번 인도순례는 깨달음 성지 부다가야에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사찰이 문을 여는 의미를 기리는 일정인 만큼, 대표단은 부처님 첫 설법지인 바라나시 녹야원을 시작으로, 성도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등을 잇따라 순례하며 환희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표단은 5월 18일 뉴델리에서 바라나시로 이동해 첫 공식일정으로 사르나트 녹야원과 박물관을 순례했다. 녹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다섯비구에게 법을 전한 초전법륜지다.

이날 40~50℃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다메크탑 앞에 정렬한 대표단은 약식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가 봉행된 다메크탑은 부처님 입멸 후 200년이 지난 아쇼카왕 당시, 부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첫 설법을 내린 장소에 건립됐다. 이후 역사의 풍파 속에 훼손되고 방치됐지만 1835년부터 1930년대까지 발굴과 정비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조성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공식대표단을 구성해 인도 사르나트의 초전법륜지를 순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곳에서 240km 떨어진 곳에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다가야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걸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와 사슴이 뛰어노니는 가운데 첫 설법을 내리셨으니 이 다메크탑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식법회에 이어 다메크대탑을 중심으로 합장한 채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탑돌이를 이어갔다. 불자들은 성지에 머무는 동안 무더위를 잠시 잊은 채 눈을 감고 기도 삼매에 들었고, 일부 불자들은 환희와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부다가야로 이동해 마하보디사원을 참배했다. 마하보디대탑 내부 감실로 이동한 대표단은 헌화 후 약식으로 예경을 올린 데 이어, 부처님이 6년간 고행 끝에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아래로 이동해 전통방식 칠청례로 저녁예불을 올리기도 했다.



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나무 아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조계종 대표단.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산문을 연 분황사 부처님.



조계종 대표단이 바라나시 다메크대탑에서 탑돌이하는 모습.

현장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보시문화 확산"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식 직후
기자간담회서 의미·소회 밝혀
"한국불교의 근간은 보살정신"
"열걸음 중 한걸음"의 자평도

"대승불교인 한국불교의 근간은 보살정신에 있고, 육바라밀의 첫 번째도 보시바라밀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봉사하는 실천이 바로 보살행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불자들이 보시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곧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남을 위한 보시와 봉사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보자는 취지였지요. 열 걸음을 위한 한걸음 정도는 디뎠다고 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식 후, 기자들과 만나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대한 소회를 풀어냈다. 분황사 건립불사는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결실이다.

스님은 2019년 4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10대 불사를 기반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포했다, 불자 한 사람이 매일 100원을 보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불자가 백만 명에 이른다면 한국불교 중흥의 역사를 새롭게 새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특히 분황사 건립불사를 비롯해, 승려와 불자들의 의료·노후복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신도시 포교를 위한 세종시 광제사와 위례 상월선원, 사찰 성보의 연구 보수를 책임질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홍제사, 10.27 법난기념관 등 10대 불사를 선포했다.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의 동참이 잇따랐고 불과 4년간 120억 원이 모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행 스님은 "모연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백만원력결집불사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라며 "보시문화 확산을 통해 보살정신을 되살리고 한국불교 중흥을 일궈낸다는 근본 취지를 볼 때, 이제 열걸음을 위한 한걸음 정도는 디뎠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고불문을 낭독하는 원행 스님.

특히 스님은 "불자 한사람이 하루 100원을 보시하면 한달에 3000원이 되고 이를 백만 명이 행하면 연간 360억 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100원을 보시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매일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만원력결집불사는 한국불자들이 보시를 습관화해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며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위해 좀 더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웅보전을 낙성한 분황사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스님은 "분황사가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열반경〉에 성지순례한 공덕으로 삼악도를 면한다고 했다. 분황사 건립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불자들이 부처님 발자취를 되짚고 분황사도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 부다가야=송지희 기자

상월결사 3차 평화방생순례, 세계평화 외치다

5월 25일 장성 백양사서 세 번째 평화방생순례 봉행

불교 각계 인사 1300여명 참석
정광고 학생 등 청년불자 운집
백양사서 평화발원 축원법회도
왕복 10km 행선하며 마음모아

장성 백양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백양사 산문을 들어오고 있다.

세계 평화 기원과 함께 행선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생명평화순례가 봉행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5월 25일 장성 백양사에서 평화방생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회 부의장 각림, 만당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들과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 조계사, 봉은사 신도들을 비롯해 도선사, 수국사, 호압사, 연운사, 불갑사, 관촉사, 원적정사, 안국선원, 총림사, 염불사 등에서 신도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을 비롯해 수미산원정대 대원 등 재가불자들과 박창환 前 남도정무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와 이개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도 참석했다.

순례에 앞서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평화순례에 대한 의미와 특별히 평화방생으로 이름붙여진 행사 취지가 설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회주 자승 스님 인사말 대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불교의 현실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불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의 장을 만들기 위해 3년째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순례 과정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의 방생을 하는 수행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상월결사 실천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입재식을 마친 대중들은 장성 약수중학교부터 백양사까지 5km 구간을 행선하여 백양사에 당도했다. 백양사에서는 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의 백양사 역사 설명과 함께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집전 하에 생명방생 축원이 진행됐다.

이날 백양사 평화방생순례에서는 다른 순례와 달리 10~20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특히 정광고교생 80여 명이 순례에 동참해 백양사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와이즈캠퍼스 입학설명을 듣기도 했다.

송한솔 정광고 파라미타 회장(3학년)은 "스님들과 걸으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찼다. 혼자 걷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 더욱 기뻤다"고 말했다.

이지범 정광고 총학생회장(3학년)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이렇게 함께 정진할 수 있게 됐다. 방생이라고 하면 보통 생명방생만을 떠올리지만, 마음의 평화도 또 다른 방생이라는 말에 느끼는 바가 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순례는 백양사에서 다시 약수중학교까지 이어졌으며 회향과 함께 순례 대중들은 또 다른 순례를 기약했다. 회향식에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참석 신도대표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선물했으며,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정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7월 6일 보은 법주사에서 네 번째 평화방생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불교 도약 위해 사부대중 머리 맞대다

금산사,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개최

80여 사부대중 모여 현안 토론
도법 스님 "문수 지혜 모으자"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와 태고문도회는 5월 21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불교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는 5월 21일 전주 혁신도시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백련사 주지 평상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8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지역불교의 현황과 문제점,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사부대중이 모여 전북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전북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전북불교를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논의해 전북지역에서 지역대중들의 구체적 고통을 살펴 극복의 방법을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부대중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전북불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불교의 존재이유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의 정신이 곧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을 통한 뭇생명의 안락'으로 실현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공부와 수행의 결과가 개별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종단전체적인 측면 즉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암담하고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스님은 이어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암울한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결정적인 한걸음의 실천을 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암담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사부대중원탁회의에 참여한 대중들이 희망의 주체다. 집단지성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원탁회의에 동참한 대중들은 8개의 분과로 나뉘어 '내가 본 전북불교의 현재와 전북불교 발전을 위한 방안은?'이라는 주제와 '원탁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 토론을 진행했다.

모듬 토론에서는 노령화와 탈종교화로 인한 신도수 감소, 사회참여에 대한 불교인들의 무관심, 불교 복지활동의 미흡, 신도회 비활성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교행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개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적 관점과 시스템을 향한 노력 필요, 교구 및 사찰운영에 있어 합리적이며 민주적 공의 체계 추진, 불교관련 사업의 연속성 보장,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의 필요성, 고령화, 탈종교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문제점을 사찰과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평상 스님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전북불교의 현실을 공유함에 있어 전북불교 전체 대중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조계종 17교구, 24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며 "출재가 간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전북사회 속에서 전북불교의 활동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지난해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100일을 맞아 문도회의에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도법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간담회에서 전북불교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문도 화합과 교구 혁신, 원탁회의 발족을 밝힌 바 있다. 당초 3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됐으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리는 수행자' 진오 스님, 대통령 표창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진오 스님〈사진 왼쪽〉은 법무부가 5월 20일 정부과천종합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15회 세계인의 날' 시상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진오 스님은 이주민의 안정적 초기 정착 도모, 외국인 가정을 위한 무료 진료소 운영 및 교육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1년부터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펼쳐온 진오 스님은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 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립시설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박예진 학생, 파라미타 사경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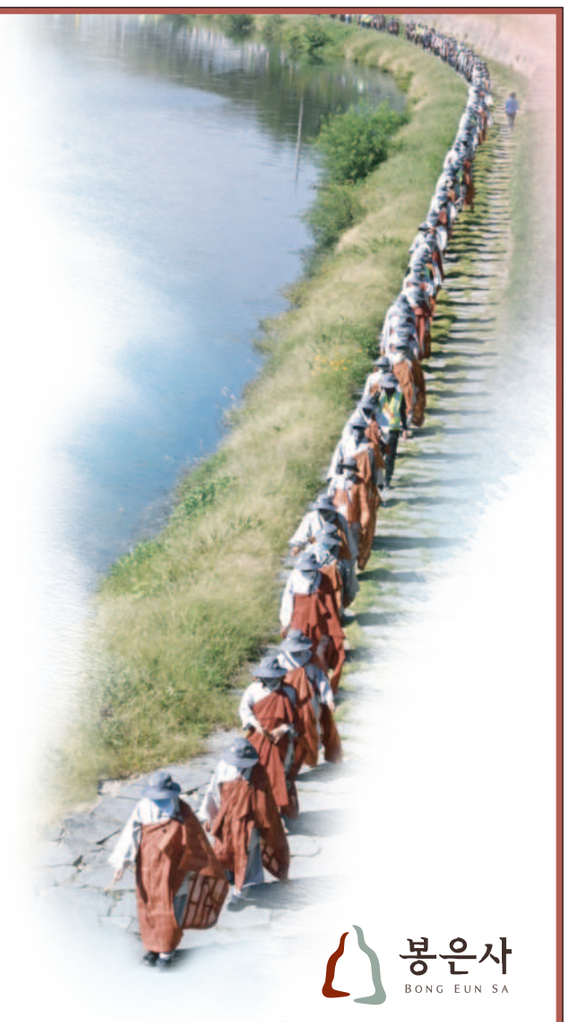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가 주최하는 25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 박예진(광동고 3) 학생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동국대학교 총장상) 수상자로 문서현(수명중 1), 장서희(동대부여고 1)학생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사경연구회장상)은 김리건(은석초 4), 특별상은 조서연(청담중 1), 김민(은석초 6), 노을(동대부여고 1), 김지후(경포고 3), 최예섬(동대부여중 2)학생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경공모전은 전국에서 2만 1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그 중 36개 단체의 작품 중 460여 점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5월16일 연합회 자체심사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63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행오 스님은 "올해 사경공모전이 중간고사 시기와 겹쳤음에도 많은 작품을 출품해준 학생들에게 무한한 격려를 보낸다"고 심사평을 했다. 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어르신 · 부모 · MZ세대, 템플스테이로 '오감만족'

문화사업단,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잇달아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사업단 ·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선사에서 어르신 템플스테이
부모 · MZ세대 템플스테이 체험
실천 통한 인지도 상승 기대돼


5월 25~26일 봉선사에서 열린 어르신을 위한 템플스테이에서 어르신들이 연꽃등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다.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 어르신 20명이 참석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특별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어르신부터 부모, MZ세대 등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와 함께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봉선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열린 이날 템플스테이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20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2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인 배우 정찬 씨도 함께했다.

5월 25일 열린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안으로는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20년 동안 세계 25개 국가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고 누적 연인원 6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템플스테이는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며 "문화사업단과 봉선사가 열심히 준비했다.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모두 만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이희경(89) 씨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준 문화사업단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희경 씨는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의 하루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바쁜 일상 속 쉼의 기회가 되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들과 함께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배우 정찬 씨는 템플스테이 20주년을 축하하며 참가 어르신의 행복을 기원했다. 정찬 씨는 "20주년을 기념하는 템플스테이에 참석해 영광이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봉선사에서 1박 2일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입재식을 마친 참가 어르신들은 봉선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의 안내로 사찰을 순례했으며, 순례 뒤에는 연등 만들기 체험을 했다. 어르신들은 연잎 종이에 풀을 붙이며 연등을 완성해갔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이날 참가한 유정혜(72) 씨는 "용문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한 적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한 것은 처음이라서 너무 즐겁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영삼(80) 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료 봉사자가 추천해줘서 참여하게 됐다"면서 "봉선사에 와보니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 마음이 안정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자주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50 · 60대 부모와 MZ세대 자녀들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라떼 템플스테이' 를 진행했다. 특히 한 가족은 80대 할머니와 같이 3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라떼 템플스테이' 는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1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송광사 템플스테이에서는 1박 2일간 연꽃등 만들기 체험, 명상, 불일암 및 암자 순례 등을 통해 학창시절 부모세대가 경험한 불교문화를 자녀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심채연 학생은 "이번 템플스테이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첫 템플스테이여서 저에게 의미가 깊었다"며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부모님과 함께 잠깐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문화사업단과 송광사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 가깝고도 먼 사이는 없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업단이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6월 한 달 동안 '행복두배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 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여행가는 달' 행사와 연계해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할인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 참가자는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 원에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1만 원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1박2일 템플스테이의 경우 내 · 외국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프랑스, 한국불교문화에 빠지다

파리 길상사 · 한국문화원
5월 21일~6월 25일 진행
혜원 스님 "큰 호응 주목"


파리 길상사가 5월 21일 진행한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명상체험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국관광 · 음식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 2020' 축제가 열린 가운데, 파리 길상사(주지 혜원)와 한국문화원이 진행한 템플스테이를 향한 현지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파리 길상사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을 주제로 진행 중인 사찰 체험 행사에 현지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주지 혜원 스님에 따르면 애초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고가 게재된 후 조기마감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350명 이상이 대기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신청자는 파리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심지어 벨기에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1일 처음 진행한 템플스테이는 길상사 정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의 사진을 둘러보며 한국 사찰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로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주지 혜원 스님이 직접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발우공양과 마흔느강 걷기 행선, 좌선과 요가, 다도, 울력 등 참가자들이 사찰의 청규 정신을 배우고 생활을 수행으로 삼는 체험으로 구성됐다. 체험용 발우와 체험복은 주불한국문화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이 각각 후원했다.

혜원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진행된 발우공양을 낯설고 복잡하게 느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참가자 모두가 게송 한 구절 한 구절을 후창으로 따라하며 의식의 전단계에 잘 참여했다"며 "혼자서 참가자들 전원의 공양을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발우공양에 담긴 정신과 덕목이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도와 명상 프로그램은 소림헌에서 진행됐다. 소림헌은 파리 길상사를 창건한 혜원 스님의 은사 법정 스님이 프랑스에 방문 시 거처하던 곳으로, 지난 2019년 개축불사를 완료하고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혜원 스님은 "처음 문화원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당시, 현실적으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 망설였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첫 템플스테이를 원만하게 회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문화와 수행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항일유적 법정사터, 現법정사 위치 아냐"

한상봉 향토사학가, 5월 21일
봉려관문화원 세미나서 주장

봉려관 스님이 창건해 항일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했던 제주 법정사항일유적지의 실제 위치가, 현재 법정사가 아니라 '법정이내' 로 지칭되는 하천의 동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 중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상봉 제주향토사학가는 5월 21일 (사)봉려관문화연구원이 개최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학술세미나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 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사학가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항일유적지 법정사터가 지금의 법정사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시 지형도와 주민 증언, 사료와 직접 답사 등을 총괄해 분석한 결과 현재 법정사 위치가 아니라 하천 법정이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역민들의 증언과 유구의 존재 △1948년 항공사진에서 법정사 잔존유구에 실재한 건물 확인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화전민들의 터전이 법정사 잔존유구와 인접해 있다는 증언 등을 제시했다.

기존연구에 의해 법정사항일유적지터가 현재 법정사 위치로 인식된 데 대해서도 '무리수를 둔 판단' 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학가는 "기존연구에서는 1918년 지형도에서 하천의 변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증언과도 상충된다"며 "기존연구의 오류는 지형도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과 증언 누락, 현장답사를 통해 화전민들의 이동경로 등을 추적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수 동국대 문학박사(불교신문 부장)가 '격동기 근대제주사회에 여명 밝힌 봉려관 연구' 를,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제주항일운동연구의 성찰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지희 기자



현충시설 통도사, 제1회 호국영령 위령재 봉행

6월 18일 오전 11시 금강계단 마당서

2021년 현충 시설 지정 후에 첫 행사
용화전서 1000불 미륵옥불 점안식도
6 · 25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
6월 5일, 보훈의달 기념 작은음악회
호국불교 의미새기고 국태민안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해 11월 현충시설로 지정된 통도사(주지 현문)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시설 지정 후 처음으로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6 · 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둔 6월 18일 오전 9시 용화전에서 1000 미륵옥불 점안식 후 11시에 금강계단 앞 마당에서 위령재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지난해 통도사가 6 · 25 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이었다는 사료와 증언이 나온 후 지정 요청을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통도사는 2019년 9월 용화전 미륵불소조좌상의 복장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도사가 육군병원이었다는 사실이 담긴 연기문(용화전 미륵존불 更 조성연기)을 발견했다. 구하 스님(1872~1965)이 쓴 연기문에는 "경인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이병 3000여 명이 입사해 불기 2979 임진년 4월 12일 퇴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통도사는 이후 현충시설 지정을 위해 한국전쟁 당시 입원했던 생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록한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했고,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지정서의 정식 명칭은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쓰인 곳-통도사'이며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로 명기했다. 지정서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충시설 관리번호는 '42-2-22'이다.

통도사는 현충시설 지정 요청과 함께 호국영령을 위한 불사를 기획했다. 용화전을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기념하고,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호국불교 도량으로 활동한 통도사의 역사를 알리는 의미를 담아 1000 미륵옥불 조성불사를 이어왔다.


통도사 용화전 1000 미륵옥불 모습.

통도사는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미륵옥불'을 조성해 용화전에 봉안한다"며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불사이며 국태민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공식 후원하는 위령재에는 6 · 25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와 유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오후 1시 30분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무대에서 '국가현충시설(31 육군야전병원) 통도사에서 열리는 숲속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크로스오버팀 뮤타타 등이 출연한다.

통도사는 "한국전쟁뿐 아니라 통도사는 국난을 겪을 때마다 동체대비 정신으로 국민의 안식처로 활동하며 국가 호국 성지로 역할을 이어왔다"며 "이번 행사를 맞아 호국불교 정신의 의미를 전달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회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우리는선우, 석구 스님 수행록 봉정식

수행록 〈기도밖에는 모릅니다〉 봉정
제천 우리는선우 창립 30주년 기념

재가불자 모임 제천 우리는선우(지회장 김연호)가 5월 22일 명성 유유예식장 2층에서 책 〈기도밖에는 모릅니다〉 봉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천 우리는선우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됐으며 지도 법사로 함께해준 석구 스님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은 석구 스님의 50년 수행 이야기를 구술로 풀어낸 것을 정리해 엮은 것이며, 책 판매 수익금은 제천 우리는선우 청춘 불자회 활동에 기부한다.

봉정식에는 석구 스님을 비롯해 김연호 회장과 전국 우리는선우 회원 및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책 봉정 이후 김연호 회장과 구완회 교수가 책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인사말 순서가 이어졌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 석구 스님의 법문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김연호 지회장은 "스님의 50년 수행 과정 모두를 담기에는 한없이 부족함이 느껴진다"며 "스님의 수행집을 남기고자 한다는 소식에 전국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십시일반 후원해 오늘 이 자리도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두의 마음을 담아 스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구 스님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 생각해왔는데 회장님과 회원들의 부탁에 이렇게 수행집이 나오게 되었다.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지만 인연이라 여긴다"며 "그동안 많은 분의 시주와 관심으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더욱 열심히 지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구 스님은 1950년 2월 6일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성산 마을에서 출생했다. 1969년 9월 8일 법주사로 출가해 혜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강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제천 자은사 주지이며 우리는선우 지도법사, 제천과 단양 파라미타학생회 지도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제천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등 불교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제천 우리는선우는 1992년 4월 25일 창립됐다. 재가 불자들의 결집과 수행을 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창립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청년회, 아동청소년 차상위 가구 후원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명은)가 5월 21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복가득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서 미소원 청년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아동청소년 차상위 계층 20가구에 비타민과 간식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이명은 미소원 청년회을 비롯한 회원들과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으며, 전달식 이후 청년회 회원들은 직접 후원 가정을 방문해 행복선물 키트를 전달하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행복선물키트는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년들이 봉축등을 권선하며 모은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흥부암, '소소 산사음악회' 개최

〈小少〉

김해 임호산 흥부암(주지 범종)이 5월 21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회 소소(小少)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지역민에게 힐링과 쉼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범어사 다도 문화에 담긴 불교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마하다도회 만다라 시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국악과 성악곡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의 향연이 이어졌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도라지', '달이 뜨면 만나자', '옛사랑' 등을 가야금으로 연주했고 강태길 바리톤과 강민경 소프라노의 무대는 품격 있는 음악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탑 오브 더 월드(Top of the world)', '벚꽃엔딩',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불러 대중을 즐겁게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터뷰

성림 스님(부산영산재보유단체장)

"불교범패 타종교인 심사는 이해 안가"

부산무형문화재 영산재 심사과정 비판
한국 3대성악곡 범패, 세부장르 제외도



부산영산재보유단체장 성림 스님〈사진〉이 지난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림 스님은 지난 5월 24일 부산 관음사에서 개최한 부산영산재 공개행사에 참석해 "지난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에서 무속을 연구한 사람과 타 종교인들로 평가단이 구성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범패는 한국무형문화재로서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는 전통문화이자 불교 의례를 장엄하는 역사의 산물이다. 문화재 가치를 모르는 부실 행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유자 심사를 받을 당시 무용 전공자와 타종교인 그리고 무속 연구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있었다. 무형의 전통맥이 구전심수로 면면히 이어지는 영산재 심사는 불교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 영산재는 불교종합예술 의식의례로 나비, 바라, 작법, 장엄 네 분야가 필수이다. 현재 부산 영산재는 작법 분야만 보유자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림 스님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단이 영산재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산재가 제대로 보전되려면 작법 뿐 아니라 장엄과 나비, 바라 등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 보유자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님은 영산재의 가치에 알맞는 지원도 강조했다. 스님은 "범패는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 한국 전통과 불교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분야이지만 전통민속 세부 장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무형문화재의 발전을 위해 전수관 개설도 시급하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 등한시 되어 왔던 범패의 가치를 새롭게 세울 때"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제5대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취임

5월 21일 정법사에서 취임식
문화재지킴이 발대식도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김재호)는 5월 21일 창원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광우 스님(정법사 주지)을 비롯해, 파라미타사무총장 혜교 스님, 해덕사 법진 스님, 김재호 청소년협회장, 양수만 직전회장, 하병형 수석부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청소년활동 영상시청, 개회선언, 국민의례,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 소개, 경과보고, 추대패 수여, 선서문 낭독, 분회기 전달, 우수지도자 및 회원 표창장 수여, 회장 인사말, 격려사(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축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범해 스님), 발원문, 단주 및 뱃지 증정, 사홍서원, 폐회선언, 공지사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파라미타 협회장으로 추대된 광우 스님과 새 문화재지킴이 대원들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추대패를 받고 있는 광우 스님(오른쪽).

광우 스님은 "이날 자리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함으로써 참된 삶을 보내고 마음의 안식처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의 활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파라미타 총재 범해 스님은 사무총장 혜교 스님 대독을 통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1996년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를 목표로 설립 후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을 심어왔다"며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건넸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회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애호의식을 갖고 미래의 문화유산 보호 주체로서 나서자"며 "우리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 총명사, 삼존불 개금불사 성만


거제 총명사는 5월 22일 삼존불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쌍계총림 거제 총명사(주지 호석)는 5월 22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불사에는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총명사 호석 스님, 쌍계사 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 강주 대각 스님, 고성 옥천사 종성 스님, 통영 용화사 종묵 스님, 남해 용문사 승원 스님, 해원정사 원허 스님, 염불암 성전 스님, 쌍계사 사중스님, 박기련 총명사 신도회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예불의식, 2부 삼존불회향법회봉행,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 호석 스님의 경과보고 및 인사말, 내외빈 소개, 박기련 신도회장 환영사, 쌍계사 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 격려사, 청법가, 입정,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법문, 사홍서원, 회향 순서로 진행됐다.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은 "항상 기분 좋은 하루다, 더욱이 15년만의 개금불사법회가 성만되어 감개무량하다"며 "한분 한분의 원력으로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으로 환희심 나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오늘 청명한 날씨는 개금불사를 잘 모셔 부처님 광명이 곳곳에 비춘 것"이라며 "각자 욕심을 내려놓고 화합하면 사회가 밝아지고 여유로워 질 것이다.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무량공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련 신도회장는 "도량 가득한 스님과 사부대중의 참석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개금불사가 원만 회향되기까지 총명사 스님과 신도분들의 신심과 원력이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덕사, 경허선사 열반 110주기 추모다례 봉행

구한말 쇠락한 선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국불교 중흥의 기초를 놓은 경허선사 열반 110주기를 맞아 추모다례가 봉행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5월 24일 대웅전에서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수덕사 본·말사 선방에서 정진중인 수좌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훈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경허 노스님은 부처님 당시 이심전심으로 내려오는 교외별전인 불립문자 견성성불의 법맥을 이어 쓰러져가는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대역보살"이라며 "오늘 다례를 맞아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길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9세 때 과천 청계사로 출가했으며 14살에 계룡산 만화강백 문하에서 내외전을 섭렵했다. 스님은 수월, 혜월, 만공, 한암스님 등의 선승을 길러내며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했다. 스님은 1912년 음력 4월25일 세수64세, 법납 56세로 함경도 갑산 웅이방에서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정토원,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재 봉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사장 선건)이 5월 23일 정토원 대법당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정토원 등명 스님, 선건 이사장, 이장명 신도회장, 이기재 진영문화예술연합회 회장, 진영하모니합창단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법회는 바라무와 합창단의 추모공연으로 진행됐다.

선건 정토원 이사장은 "지난 15년 전 노무현 前 대통령이 봉화마을 귀향 후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던 생전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눈길'

진해 대광사서 5월 21일
제22회 산사음악회 개최

진해 대광사(주지 무경)는 5월 21일 진해 대광사 대웅전 뜰 앞에서 제22회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주지 무경 스님, 경주 기림사 종법 스님, 재)한가람문화재단 이사장 원정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천자암 해초 스님, 송림사 지암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자비사 명종 스님 외 지역스님, 유원석 대광사 신도회장, 김성철 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대광사 다도반 시라회 헌다시연이 진행됐으며, 타종, 예불에 이어 대광사 회주 운성스님 인사말, 2부 반야찬불단 공연 및 청소년 댄스(진해청소년전당), 각종 공연 및 내 외빈 소개,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인사말, 3부 마당놀이 춘향전 및 심청전 공연(김성녀,김성예 정준태 외 다수),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은 "꽃이 피고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시절이다. 봄이 축복이라 생각하며 일념으로 생활하고 극락 이루시길 바란다"며 "산사음악회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불자 김성녀 씨는 "청소년들의 당차고 발랄하고 재능 있는 공연을 보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면모를 볼 수 있었다"며 "이곳 음악회에서 하나가 되어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영산재보존위, 5.18추모 위령재 열어


광주영산재보존위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위령재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광주영산재보존위원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역에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령재를 봉행했다. 군부의 총탄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날 천도재는 광주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의식 중 지장청, 작법바라가 진행됐다. 이들 의식은 1980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5.18 영령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천도의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매년 기도를 통해 5.18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영산재는 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매년 시연을 이어오다 1992년 전통불교영산회가 창립되며 정립됐다. 2006년 광주영산재보존위로 사단법인 등록을 한 뒤 2014년 광주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러시아 출신 스님의 평화 위한 기도

모국의 이웃나라 침공 큰 충격
나라 가리지 않고 희생자 위령
"상대 배려 마음이 충돌 없애"
살아있는 생명 대한 존엄 강조

박영빈 객원기자


희생자들 모두의 넋을 기리며 평화를 기도하는 볼코고노프 스님.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달째.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양국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러시아 스님이 있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희생자들의 죽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스님의 기도에 대해 지난 5월 1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특별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볼코고노프 지진(慈眞)스님. 스님은 13살 때 운동 삼아 합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동양문화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그 인연으로 러시아 대학에서도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카이(空海)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일본불교와 문화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던 스님은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일본인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됐다. 마침 아내의 친정이 진언종 사찰이었던 것을 인연으로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됐다. 스님은 "대학에서도 진언종을 연구한 인연이 이렇게 닿은 게 아닌가"라며 기연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 교차한다. 그저 슬프고 고통스럽다"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웃에 살았던 2차 대전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그분이 말한 것은 전승의 기쁨이 아닌 무고한 희생자가 쓰러지는 전쟁의 괴로움이었다"면서 "전쟁은 오직 비극뿐. 그 어떤 평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어릴 적 친구들 중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살거나, 우크라이나 사람과 결혼한 이들도 있다. 처음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나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우크라이나인과 결혼한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며 "러시아의 어머니나 친구들이 러시아를 정당화하며 전쟁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너무나 큰 상처에 현재 남편과 독일에서 피난 생활을 하며 우크라이나로 귀화를 고민 중이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스님 역시 러시아의 동생이 군대에 징병될 수 있다며 전쟁의 비극은 당장 우리 옆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처가이자 출가본사인 오사카의 뇨간지(如願寺)에 머물며 매일 빠른 종전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하곤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다시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늘어난다면 개인들 간의 작은 충돌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모여 열매를 맺으면 슬픈 전쟁도 반드시 끝난다고 믿는다"며 온화한 표정 속에 강력한 말을 전했다.

스님은 5월 27일부터 시의 젊은 스님들이 모여 만든 불교청년회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세계평화를 위한 행각순례'의 선두에 선다. 스님은 "러시아인이기에 비판받을 수도 있다.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출가자로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그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 美 티베트문제 특별조정관 접견

5월 19일, 국무부 차관 첫 만남
중국 반발…"정치망명자" 비난


우즈라 제야 차관과 미국 대표단을 만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미국 정부 티베트문제 특별조정관인 우즈라 제야 국무부 차관과 그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만남에 대해 중국정부는 즉각적으로 맹 반발에 나섰으며, 망명 티베트인들은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판첸라마의 행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다.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파율' 등 외신들은 5월 19일 달라이라마의 접견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다.

5월 19일 오전, 다람살라의 관저에서 열린 접견에서 우즈라 제야 차관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항상 전하는 달라이라마께 감사를 표하고 "미국 대통령과 국민들을 대신해 인사를 전한다"며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달라이라마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접견에 외신들의 주목이 집중됐다.

달라이라마는 이 만남에서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라며 미국과 인도의 정치체계를 칭찬했다. 또한 "특히 인도에서 모든 종교전통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주목할 만한 예시"라고 강조했다. 또 달라이라마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 스스로의 사고체계조차 크게 바뀌고 있으며 거기에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사라졌다"고 이례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달라이라마와 제야 차관은 티베트의 전통문화 자연환경, 언어와 종교전통의 보존과 복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제야 차관은 이후 티베트 망명의회와 티베트 기록보관소 등을 방문했다.

중국은 이 만남에 대해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정부가 티베트 분리주의자와 결탁했으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달라이라마는 종교인을 위장한 정치망명자"라고 비난하며 "중국을 분리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이며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의 방문에 맞추어 인도의 망명 티베트인들은 1995년 중국정부의 납치로 행방불명된 판첸라마의 행방에 대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판첸라마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자리하는 중요한 지위로 달라이라마가 지목한 판첸라마는 95년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중앙 티베트 여성협회는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티베트 내 인권 실태를 판단해 달라. 사라진 우리의 스승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연설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모디총리, 룸비니 방문

베삭데이 맞아 네팔 총리 함께
국제 불교문화유산센터 기공도


부처님의 탄생지인 마야데비 사원에 헌등하는 모디 인도 총리와 데우바 네팔 총리. 사진출처=나렌드라 모디총리 공식 SNS

네팔과의 경제 및 국경문제 회담을 위해 네팔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네팔 룸비니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총리가 함께했다. 양 총리는 룸비니에 세워질 국제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에 참석했다. 불교로 묶인 양국의 이야기를 5월 20일 인도의 '트리뷴 인디아' '인디안 타임즈' 등이 보도했다.

UN이 공식으로 인정한 베삭데이에 맞춰 5월16일 모디 인도 총리와 데우바 네팔 총리는 함께 룸비니를 방문, 부처님이 태어나신 마야데비 사원을 참배하고 공양을 올렸다. 두 총리는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룸비니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은 채, 주요한 성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두 총리는 마야데비 사원에 헌등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양국에 공통된 유산, 문화, 믿음을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 자산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자비를 가르치신 부처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세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이후 룸비니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총리는 6개 협정을 교환했으며 이중 5개는 양국의 교육과 문화적 유대 강화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총리는 또한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에 설립될 '국제불교문화유산센터'의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완공 이후 국제불교도 연맹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인도 현지언론들은 이번 모디 총리의 방문에 대해 "최근 양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네팔의 강력한 선전에 모디 총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부처님의 탄생지는 네팔, 주요 활동지는 인도로 양국의 여론이 진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 대해서 단순한 문화적 방문이 아닌 불교를 통한 네팔 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적되고 있어 향후 양국의 행보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마가드대 불교과 학생 유치 고군분투

학생 36명 · 교직원 2명뿐
정치 · 재정 문제로 운영난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서 온 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인도 비하르 마가드대학교 불교학과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 등 외신은 5월 20일 "현재 캄보디아와 미얀마로부터 온 몇 안 되는 36명의 학생들만 있다"며 "그 학과는 오직 2명의 교사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학과의 부교수인 비슈누 샹카르(Vishnu Shankar) 박사는 "불교학과가 최근까지만 해도 꽤 만족스럽게 운영돼 왔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교직원 부족으로 인해 학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코로나 19 사태 속에 이곳까지 와서 불교학 강좌를 개강할 여건이 안 됐다"며 "게다가 대학 시험체계 마저도 엉망이 됐다"고 부연했다.

마가드대학은 1962년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교를 기리기 위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전해지는 보드가야에 세워졌다. 불교학과는 1984년에 키드와이 총독과 스리랑카 고등판무관에 의해 처음 창설됐다.

보도에 따르면, 불교학과는 20세기 말 정치적 독재자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후부터 급격히 사회적 위상을 잃었다. 이어 부정 학위 및 수료증을 수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까지 했다.

관련 당국은 학과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2021년 학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불교학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소수의 교직원, 취약한 재정상황, 행정적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평가보고서는 "자격 있는 교수진을 갖춤으로써 불교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관망했다.

샹카르 박사는 "학과의 본 모습을 되찾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학생들의 취업률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5~5/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마음닦는법	김재웅 지음	용화
2	요가수트라(아헹가요가시리즈8)아헹가 선생이해설한요가경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7	운명을바꾸는법(정공법사요범사훈강설)	정공 법사/이기화	불광출판부
3	무비스님의 신심 명강의(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8	디가니까야(3)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고승열전14)만공스님	윤청광	우리출판사	9	법구경(작은경전1)	석지현 옮김	민족사
5	반야심경 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10	마하시사야도의아리야와사법문(큰북여섯)성자의집경해설	마하시 사야도	불방일

책세상

"내가 찾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나를 찾아가는 여행
최석원 지음/김보니 옮김
사유수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와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저자가 한국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현대불교신문사서 함께 일한적이 있다. 저자는 기자일이 아니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잠깐씩 사내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저자에 대한 기억은 겉모습은 나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유창한 영어실력에 부러움을 느낀것이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한국말은 내가 더 유창했지만. 이번에 펴낸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가까이서 몰랐던 저자의 내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캐나다서 태어나 하키와 버거쉑을 사랑한 저자는 한국에 들어와 판소리와 동양철학에 매료되고 낭만적인 출가까지 꿈꾸지만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에도 포기 않고 '내려놓아야 알게 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면의 지혜를 체험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 때로 포기하고 싶은 삶의 역경 속에서 스승을 만나고 간절함 속에 터득한 삶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씨줄과 날줄로 튼실하게 묶었다. 하나의 마음도 헛되게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말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 시절 불교학과 교수 해주스님이 저자에게 일러준 말씀이다. 한국서는 아이들도 다 아는 속담이라는 걸 저자는 나중에야 알았다. 당시엔 스님이 저자에게 젊은 나이에 날개를 힘차게 쭉쭉 펼치라고 허락한 것 같이 들려서 매우 기뻤다고 한다. 현재 저자의 나이는 불혹인 50세이다. 캐나다의 한 대학서 강의 하며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고백한다. 캐나다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 동포인지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다른 얼굴 모양과 피부색, 유교적인 가풍, 음식문화의 차이 때문에 당혹스런 일을 겪으며 소외감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으로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1991년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나 한국서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말도 서툴고 글은 거의 쓰지 못

젊은날 불안전한 정체성에 혼란 느껴
어머니 통해 대행스님 가르침을 접해
힘든 상황이 저자 성장시켜준 밑거름

했으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때 저자는 완전히 얼치기였다고 스스로를 평한다.

캐나다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불완전한 정체성. 이러한 불확실성은 저자가 꿈꾸고 도전한 전공과 직업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서울대서 영문학 학사를 취득하고 다음에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禪學科)로 전교-전과했다. 그러다가 국악, 그 중에서도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도전했으나, 실력의 한계에 부딪혀 언론사로 방향을 바꾸었다. 'The Korea Herald' 신문기자와 몇 군데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어느듯 한국에서 총 12년을 살게 되었다. 20대 청춘을 한국서 거의 보낸 셈이다. 그러다가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자신을 키워준 캐나다의 자연이 그리워 결국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은 대학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랜 방황의 닻을 내렸다. 이런 과정에서 아픔도 많았다고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고 소위 대문의 안과 밖 경계선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방황의 매순간은 저자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좌절감을 불러왔다. 그런 중에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부처님 법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를 통해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되어 어려울 때마다 대행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왔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경계들은 반드시 그 숨은 뜻이 있으며 견딜 만한 것이라는 가르침이었다.

어릴 때부터 핸디캡으로 작용한 모호한 정체성과 힘든 상황이 오히려 결국엔 저자를 성장시켜준 밑거름이 되었다. 여리고 유약한 천성은 훨씬 다이내믹해지고 유연성 있는 성격으로 변했다. 〈법화경〉 이야기처럼 자신 안의 보배를 찾은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부족한 글이지만 나의 지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낸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한국서 펴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지난 2018년 캐나다서 영문으로 먼저 출판돼 그해 〈FINALIST 출판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한국판은 뉴질랜드 메시대서 공부한 김보니 작가의 탁월한 번역 실력과 소탈하고 친근한 그림으로 책의 지루함을 달래준 만화가 강병호 작가의 의기투합에서 비롯됐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나는 기억 저 편으로 숨어버린 어린 시절 일들을 되살리기 위해 부모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며 "어떤 때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감사함을 표한다.

"마음챙김, 어려운 길 헤쳐낸 자신 존중하는 힘"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 마음챙김
정화 지음
북드라망 펴냄/1만7천원

뇌과학과 진화생물학 성과들을 불교 이론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정화 스님의 두 번째 마음강의를 묶은 책이다. 공부공동체인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서 2019년에 진행한 강의를 기반으로 새롭게 썼다. '결핍' '자기극복' '증여' '공부와 글쓰기'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글과 '왜 생각길을 바꾸어야 하며' '차이를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챙김'을 통해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한다.

힘을 빼고 몸과 마음서 일어나 사라지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을 하다 보면, 익숙한 이미지가 변하고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않던 현상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은 만들어진 허구의 이미지에 속지 않을 단초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탓이 아닌데도 자신을 탓하면서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이 보일 것이고, 그것으로 아파했을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되면 어려운 길을 헤쳐 온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마음챙김'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인지된 사건들은 기억정보를 바탕으로 무의식 층이 만들어 준 이미지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그런데 기억된 정보는 학습과 환경 등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으므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확률도 아주 높다"며 "예를 들면 자기 탓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학습 등에 의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 결과를 합리화시키면서 탓하는 습관을 강화해 온 것일 수도 있다. 마음챙김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마음씀을 체화시키는 것이 곧 수행
'자신존중'과 '자기극복'은 구분해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과 '자기극복'의 구분에 대해서도 저자는 〈금강경 사구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자기 극복이란 틀린 전제로 자신을 보는 안목을 내려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거를 반조해 보는 학습과 '마음챙김'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금강경 사구게〉를 생각으로 익히는 것이 온갖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더 크냐고 물었어요. 〈금강경 사구게〉 가운데는 '부처를 보려고 하고, 부처의 법문을 들으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게송이 있는데, 그 것을 나름대로 풀면 '부처를 보려 하는가/어쩌지 부처는 형색이 없는데/법문을 들으려 하는가/어쩐다 부처는 법문을 한 적이 없는데/허니, 보고 들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나/그 마음이 확 빠져나가면/보이는 것마다 부처요/들리는 것마다 부처의 법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저자는 계속 설명을 이어간다. "이 사구게가 뜻하는 내용은 그대의 빈 마음인 다보여래가 온갖 부처를 빚으면서 법문의 비를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금강경 사구게〉를 생각으로 이어 가다 자신의 다보여래를 만나게 된다면 그 공덕은 비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그릇된) 전제가 확 빠져나갈 때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자신을 존중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으니, 틈틈이 그냥 알아차리는 연습인 마음을 챙기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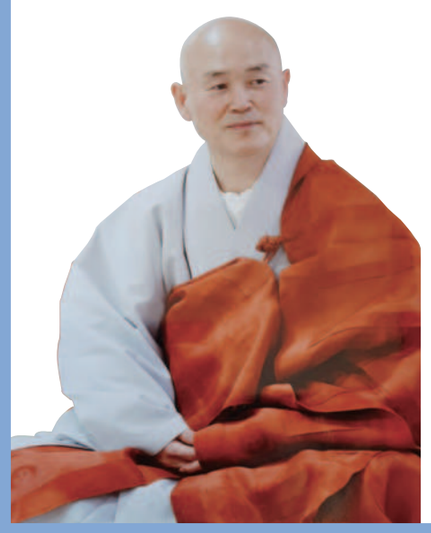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자는 책 속에서 수행에 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풀어간다. "수행은 늘려 이야기하자면 팔만대장경이 될 것이고, 줄이면 욕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마음씀을 체화하는 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며 "일하다 보면 잘하려는 욕망이 앞서, 일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습관을 키우기도 한다. 그러므로 바람 없이 그냥 청소 등을 하는 마음씀이 빈 마음을 체화하는 수행이 되고 그렇게 익힌 마음씀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재된 타인의 시선에 의해 들뜨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씀이 익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마음씀을 체화시키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3차분 13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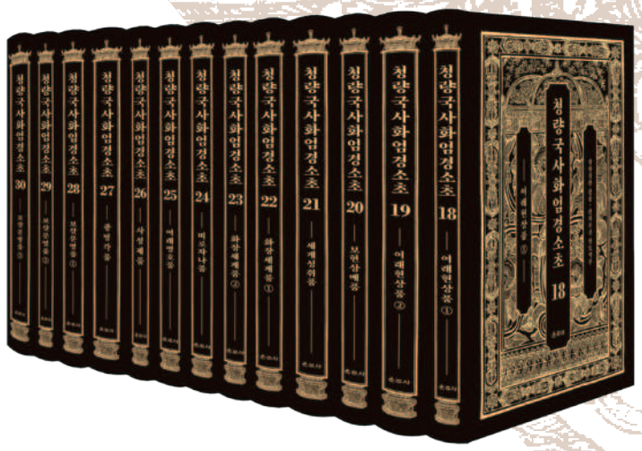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3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1차분 「화엄현담」 10권(2020년), 2차분 세주묘엄품 7권(2021년)
드디어 3차분(2022년) 제2품 여래현상품부터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제10품 보살문명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향 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기획전
'향도구 특별전 청공향사'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향완 병향로 등 소장 향도구 전시
사찰의 향 문화 전승과 보존 조명
향 문화 오랜 인연 보고이자 성지
부대행사 특강 · 시연 행사도 진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기획전 '향도구 특별전 청공향사(淸供香事)'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1777, 국보)'을 비롯해 통도사 소장품,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광우 스님(마산 정법사 주지), 원행 스님(광제사 주지)이 30여 년 동안 수집한 한 · 중 · 일 향 도구 관련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되는 유물은 표충사가 소장한 고려시대 향완(국보)과 조선시대 향완(보물) 2점을 비롯하여 위진남북조 때부터 당송시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병향로, 그리고 향시반이 전시되는데, 병향로는 이운의식을 할 때 주로 활용했던 향로로 긴 손잡이가 있어 장시간 이운의식을 봉행하기에 편리하게 제작됐다. 향시반은 선원에서 입선 시간을 재기 위해 사용했던 향시계로 향 소임자를 두어 향 틀에 향 가루를 채워 입선 때 불을 붙이고 향 연기가 그치면 방선죽비를 치는 형식으로 활용했다. 이 밖에도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할 때 했던 고향(告香)의식 등의 다양한 의식을 제정해서 여법한 수행과 교화에 이를 활용했다. 이처럼 향 문화는 수행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향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전시가 전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번 전시는 통도사에 남아있는 향 문화 관련 문화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옛 향 문화를 조명하고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래 전부터 향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해온 통도사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의 연구 결과를 선보이게 된 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통도사가 고대로부터 찬란하게 꽃피웠던 향 문화의 보고이자 성지이기 때문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은 인연으로 향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이를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청동박산향로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1777, 국보)

통도사 곳곳에는 향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 〈통도사사적약록〉, 〈사지사방산천비보사〉에는 통도사 안에 있었던 일곱 개의 사찰인 칠방의 특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칠방 가운데 향 문화와 관련이 깊은 곳이 곡성방인데, 기록에는 "더욱이 곡성방이라고 한 곳은 자장율사께서 처음 통도사를 창건하실 적에 암자를 짓고 이곳에서 왕래하며 통도사 창건을 감독했으며, 후에 율사의 제자 중에 곡성이 있었는데 절의 이름을 고쳐서 곡성사라고 했다. 곡성 스님이 주석하여 임종에 이르렀는데 늘 선정에 들어서 좌선을 할 때면 오색구름이 절 위를 덮고, 다섯 가지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해서 후에 운곡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통도사 계맥이 이루어지고, 불전의식을 담당했던 스님을 화향제자(火香弟子)라 했는데 자장율사의 화향제자인 조일율사가 통도사의 문수 계맥을 전수했고 지금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통도사 금강계단을 축조하고 21년이 지난 뒤 저술된 당나라 도선의 〈계단도경〉에는 석종형 부도의 구조 및 형식에 오분향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과 석종형 부도의 정면에 향로가 조각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장 및 각종 의식문에 수록된 게송을 통해서도 향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의 수행과 교화에 향 문화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향로가 제작됐으므로 향완, 병향로, 향사반 등과 같은 다양한 향 도구의 이해와 고향의식 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찰의 향 문화전승과 보존에 대해 살펴보고 수행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중앙괘불전에서 전시와 관련된 특강과 시연 행사도 진행한다. 5월 28일 오후 2시에는 '향으로 전하는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덕문 스님의 특강이 진행되며, 7월 23일 오전 11시에는 '향으로 드러낸 진리의 세계(향 재료와 전향의식)'라는 주제로 원행 스님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8월 20일 오후 1시에는 '헌향 및 고향의식'이라는 주제로 영산 스님의 시연이 진행된다.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폐막

대상, 김길수의 '딜레마' 등 수상
코로나 시대 '긍정의 삶' 주제 다수
미술계 콜라보로 11개 트로피 제작


대상작, 김보람의 '자매들의 밤' (한국단편경쟁 청년감독 부문)


대상작, 김길수의 '딜레마' (한국단편경쟁 노인감독)


대상작, 사무엘 페테 · 실뱅 모네의 '껍질' (국제단편경쟁 부문)

지난 5월 19일부터 열렸던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23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희유)는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단편경쟁 부문 대상 2편 등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 3편 중 한국단편경쟁 노인 감독 부문과 청년 감독 부문에는 김길수 감독의 '딜레마'와 김보람 감독의 '자매들의 밤'이 각각 선정됐으며, 국제단편경쟁 부분에는 사무엘 페테(Samuel Patthey), 실뱅 모네(Silvain Monney) 감독의 '껍질(Ecorce)'이 선정됐다.

△김길수 감독의 극영화 '딜레마'는 아들이 홀로 남은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재산 사전 증여를 요구하면 시작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온 아들이 미덥지 않다. 영화는 효(孝)를 생각하게 하는 부자(父子)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으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람 감독의 '자매들의 밤'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다섯 명의 자매들이 첫째 혜정의 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혜정은 오빠의 칠순을 맞아 해외 여행 선물을 계획하고 막내 정희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한다. 영화는 자매들의 화해와 연대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사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다.

△사무엘 페테 · 실뱅 모네 감독의 '껍질(Ecorce)'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담백한 이미지로 스케치하면서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분위기를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표현했다. 숨겨진 곳,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양로원의 일상이 펼쳐진다. 연필로 그린 입주인들이 종이 위에서 살아난다. 어떤 이들은 활동적이고, 다른 이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약, 식사, 게임으로 이루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수상 3편 중 한국단편경쟁 노인 감독 부문과 청년 감독 부문에는 김중선 · 박봉하 · 윤희성 · 이성화 · 이옥자 감독의 '어느 대장장이의 다짐'과 서정미 감독의 '김정임 씨네 막내 손녀'가 각각 선정됐으며, 국제단편경쟁 부문에는 앤 A. 하우그제르드(Ann A. Haugsgjerd) 감독의 '모어 우먼, 모어 크라이(More Woman, More Cry)'가 선정됐다.

△특별상 부문에는 5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 특별상에 조용서 감독의 '94세 코로나 일기', 시니어 배우상에 강애심 배우(자매들의 밤, 제씨 이야기), 우수 시나리오상에 이하은(제씨 이야기), 시스프렌드상에 류연수(반신불수가족)와 김필자 · 김인열(호동할매, 박말상)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지난 한 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한국단편경쟁은 코로나 배경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버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영화계와 미술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의미와 고유의 개성이 담긴 11개의 트로피를 제작했다.

박재완 기자

제12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12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반야학술상은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교육 및 학술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추천(타천) 마감 : 2022년 7월 15일
■ 추천(타천) 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초기부터 대승까지, 붓다 입멸관 변천 '총망라'

주목! 학술서 명오 스님의 '붓다 입멸 에피소드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즉 붓다의 입멸은 당시 불교도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영원불멸의 존재였던 붓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붓다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제행무상의 이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단적으로는 위기이기도 했다. 교조인 붓다가 사라진 교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숙제가 됐다. 붓다의 육체적 죽음을 두고는 이교도들의 폄하도 이어졌다. 실제 이교도들은 붓다가 보시받은 음식이 독으로 변해 병이 났다거나 식탐이 많아 과식해 설사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에 대한 반박도 필요했다.

붓다의 입멸은 기원전 3~4세기 경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기에 붓다 입멸을 어떻게 봐야 하며, 교단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붓다의 입멸을 통시적으로 연구한 학술서인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가 출간됐다.



동국대 강사로 활동 중인 명오 스님이 저술한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는 붓다의 입멸 과정부터 직후 일어난 일들, 그리고 초기 · 부파 · 대승불교에서 붓다의 입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조명한다. 붓다의 입멸을 놓고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견해를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으로 연구한 것은 이 책이 최초다.

저자는 붓다의 입멸에 관한 경전과 문헌인 〈마하빠리닙바나 숫따〉와 그에 상응하는 빠알리 경전, 한역 〈열반경〉, 〈대승열반경〉 등을 분석했고, 이에 나타난 불타관(佛陀觀)을 살폈다. 또한 쭌다가 올린 마지막 공양에 대한 견해, 붓다의 수명에 대한 견해 · 사후 존속 · 교단 유훈의 변천들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명오 스님은…동학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 ·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호주 시드니대 종교학과서 석사를 받았고, 동국대 불교학과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안 대강백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 보완해 출간
입멸 관련 첫 '통시적' 연구
초기~대승불교 텍스트 섭렵
"초기 生身, 대승 法身 집중
초기-부파 거쳐 대승도 성립"

명오 스님에 따르면 초기 경전인 〈마하빠리닙바나 숫타(대반열반경)〉은 붓다의 입멸을 통하여, 붓다의 본질과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그러기에 역사적 불타관을 표방했으며, 붓다의 생신(生身)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런 불타관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부파불교는 이를 교학적으로 해명해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법신(法身) 사상이다.

대승불교는 법신 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대승열반경〉은 법신상주(法身常住), 불입열반(不入涅槃),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불타관을 제시했고, 논쟁의 소지 자체를 없앴다.

명오 스님은 초기-부파-대승으로 이어지는 붓다의 입멸에 대한 견해는 단절된 것이 아닌 연결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초기불교는 붓다의 생신에 대승은 법신을 집중했다. 대승의 법신 사상은 초기와 부파불교를 거쳐 형성된 것이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가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명오 스님이 병마에 굴복하지 않고, 부처님의 입멸에 관한 학문적인 불사(佛事)를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명오 스님은 7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스님은 붓다의 입멸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는 이렇게 완성된 박사논문을 다듬고 보완해 만들어졌다.

명오 스님은 붓다의 입멸을 주제로 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병을 이겨낸 힘을 얻었다고 술회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춘추전국시대 좌구명은 실명한 뒤 〈국어〉를 저술했고, 손빈은 다리가 잘리는 형을 받고 병법을 편찬했다는 일구(一句)도 스님에게 큰 힘이 됐다.

명오 스님은 "경전을 통해, 죽음이 전제된 무상한 현실에서 영원불멸한 열반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부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께 귀의해 승가의 일원으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자들에게도 〈열반경〉을 꼭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붓다의 유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반경〉은 "일체중생은 본질적으로 불성을 갖추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불성 사상의 기본이 담겨있어서다.

"개에도 불성이 있다는 조주 선사의 화두가 나올 수 있던 것은 불성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종선의 근거는 〈열반경〉에 있죠. 〈열반경〉이 대승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열반경〉을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韓 치미 아름다움, 세계에 알린다

국립중앙博 · 스미스소니언博 '한국의 치미' 특별전

익산 미륵사지 치미 등 20점
미국서 전시… 특강도 예정돼

치미(鴟尾)는 고대 목조건축에서 용마루 양 끝에 높게 부착했던 장식기와로, 길상(吉祥, 운수가 좋을 징조)과 벽사(辟邪, 귀신을 물리침)의 상징물로도 활용됐다. 중국에서 시작된 치미는 한국에는 4세기 무렵 전래된 이후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목조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됐다. 한국의 치미가 가진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전시가 미국에서 열린다.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관장 체이스 로빈슨)은 '한국의 치미(Once Upon a Roof: Vanished Korean Architecture)' 특별전을 5월 21일 개막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특별전은 미국 최초로 한국 고대 장식 기와인 '치미'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전통 건축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는 백제 왕실 사찰이었던 미륵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와 백제 부소산성의 사찰 터에서 출토된 치미, 통일신라시대 월지에서 출토된 치미 등 20여 점이 소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출품 문화유산은 지금은 전하지 않는 한국 고대 건축 전통의 아름다움, 뛰어난 공법과 그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며 "전시장에는 유물 외에도 백제 건물 복원 모형, 치미의 기원, 제작 방법, 미륵사의 역사,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한 풍부한 설명 자료와 영상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

전시 외에도 한국 전통건축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특강도 진행된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이번 특별전시의 일환으로 '한국 고대 건축의 맥락(Ancient Korean Architecture in Context)'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 행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자들과 미국 현지 학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고대 건축과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의 주재로 경주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월지관을 오가며 유적과 출토 유물들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관객과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대중 강연도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연구기관 · 노르웨이 문헌硏 업무협약

5월 24일 협약식 개최

동국대 불교대학을 비롯한 불교학 연구기관과 노르웨이 문헌학연구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학 연구에 나선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황순일),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HK+사업단은 5월 24일 노르웨이 문헌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들은 △불교아카이브와 연구자료 협력 △연구연계, 특강 및 학술대회 초청 △연구자료, 출판 등의 연계 △상호 교환교수, 객원연구원 방문 등의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다언어 다문자 불교문헌 디지털 입력 △불교자료 데이터 베이스 및 인터넷 프로그램 공유 및 협업 △연구자료 상호교환 및 기술교환, 자료발행 등을 통해 한국과 노르웨이 인문학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문헌학연구소장은 옌스 브로빅(Jens Braarvig) 오슬로대 교수가 소장으로 있다. 옌스 브로빅 교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초청으로 동국대 특강과 학술대회에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 연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유럽의 다른 국가의 불교학계와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반야불교문화硏, 제12회 반야학술상 공모

7월 15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제12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교육 및 학술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추천서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되며, 추천 후보자의 최근 5년 간의 대표업적(저서와 논문 1편)을 명시해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gugujs@hanmail.net)로 받으며, 마감은 7월 15일까지다. 문의 (010)-4731-3471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7

▶ 68회 예고
수시마 부왕비의 아들 니그로다는 7세가 되자 스승 마하바루나의 권유로 출가한다. 전생에 수행자였던 니그로다는 출가하자마자 아라한과를 얻는다. 한편 띠쉬아락시따 왕비는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낸 뒤 또 다시 음모를 꾸민다.



전타기리가, 지옥궁전 옥주가 되다

아쇼까왕의 화려한 대관식은 거대한 축제 같았다. 하루 종일 궁중악대의 연주소리가 왕궁에 울려 퍼졌다. 대연회장 식탁에는 공작새 1만 마리와 염소 수백 마리 분의 고기가 올랐다. 빵은 산처럼 쌓였고, 커리는 수십 개의 동제 통에 담겨 나왔다. 대관식에 참석한 수십 만 명의 성민들은 배불리 먹고 양껏 포도주를 마셨다. 수행자들도 내성의 궁중정원 숲 그늘에서 특별한 공양을 받았다. 브라만교, 불교, 자이나교 수행자는 누구나 다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각국의 축하사절단이 참석한 대연회장의 축하연은 밤새 계속되었다. 축하연 도중에 대연회장을 나온 아쇼까는 수상 라다굽따와 함께 왕궁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6만 명의 수행자들이 공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왕님의 대관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축하사절이야 당연하지만 수상의 말대로 6만 명의 수행자들이 나를 위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오. 나는 6만 명의 수행자들에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날마다 공양을 올려야겠소. 수행자들에게 알리시오."

"수행자를 예우함은 대왕님의 선정을 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동안 내 손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 내 평판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될 것 같소. 그렇지 않소?"

"대왕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축하사절단 앞에서 대관식을 치르셨으니 이제부터는 허리에 차신 칼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칼을 휘두를 신하가 있겠소?"

"감옥 책임자인 옥주(獄主)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아쇼까는 라다굽따의 조언에 미소를 지었다.

"감옥이라고 하지 말고 지옥궁전이라고 하시오. 지옥궁전의 옥주를 선발해 보고 하시오."

"출중한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왕궁다실을 나온 라다굽따는 친위대장을 찾았다. 친위대장도 대연회장을 떠난 듯 보이지 않았다. 대연회장은 파장 분위기로 어수선했다. 그러나 강가강 강변은 여기저기 켜진 횃불로 대낮처럼 훤했다. 궁중악단은 강변으로 자리를 옮겨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친위대 조장이 라다굽따에게 다가왔다.

"친위대 대부분의 군사가 강가강으로 나갔습니다."

"친위대장도?"

"예, 저만 대연회장에 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을 불러오게. 급히 대왕님의 명을 전해야겠네."

라다굽따는 대연회장 한쪽에 앉아서 자작으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잠시 후 친위대 조장이 라다굽따에게 와서 보고했다.

"마침 대장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알았네. 조장도 한 잔 하시게."

"아닙니다. 연회장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정리가 끝나면 여기서 수고한 군사들에게 내 이름으로 한 잔 내겠네."

"고맙습니다."

그때 친위대장이 잰걸음으로 왔다. 라다굽따가 일어나 친위대장을 맞았다. 친위대장은 라다굽따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다. 아쇼까를 경호하고 경비 순시를 하느라 한 치의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친위대장은 원래 칼라따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라다굽따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라다굽따 역시 그를 믿었다. 아쇼까와 비밀스럽게 나누었던 이야기도 그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대왕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대왕님께서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소."

"그렇다고 칼 없이 통치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왕님 대신 손에 피를 묻혀야겠지요."

"저에게 왕명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오. 감옥의 우두머리를 찾아오라는 것이오. 감옥의 이름을 대왕님께서는 지옥궁전이라고 했소. 그러니 앞으로 감옥의 우두머리는 대신급이 될 것이오."

"대왕님 명대로 즉시 지옥궁전의 옥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대연회장에서 대취했다. 라다굽따는 친위대 군사의 도움을 받아 저택으로 돌아왔다. 라다굽따는 침대에 올라 누우면서 흡족해 했다. 아쇼까가 빈두사라왕 때처럼 아침마다 수행자들을 공양하기로 했고,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친위대장이 라다굽따가 상근하는 왕궁의 수상 집무실로 찾아왔다. 수상 집무실에도 따로 다실이 하나 있었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수상님, 지옥궁전 옥주 후보를 물색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옛 마가다국 땅 사람인데, 그곳의 사형수들을 도맡아서 도살자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옛 마가다국 사람들에게 전타기리가라고 불렸다. 전타기리가는 '공포의 산'이라는 뜻이었다.

"지옥궁전에 들어올 생각은 있던가요?"



"불러만 준다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 있소?"

"외성에 와 있습니다. 수상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대왕님께 알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데리고 오시오. 내가 먼저 그를 보겠소."

"친위대 군사를 시켜서 즉시 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외성에 대기하고 있던 전타기리가가 친위대 군사와 함께 말을 타고 왔다. 라다굽따는 그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체격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왜소한 체격에 얼굴은 백짓장처럼 창백했다. 외모는 학자풍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 같았다. 라다굽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옥궁전의 옥주가 될 수 있지, 하고 의아해했다. 그러자 친위대장이 라다굽따의 표정을 보고는 말했다.

"수상님, 보기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 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라다굽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다. 그러자 친위대장이 무표정한 전타기리가에게 물었다.

"대왕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왕님을 위해서 그 자를 죽이겠습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이 다 그렇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민들을 몰살시켜버리겠습니다."

전타기리가는 허약한 외모와 달리 말할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라다굽따는 그에게서 차가운 살기를 느꼈다. 옛 마가다국 사람들이 그를 왜 전타기리가(공포의 산)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었다.

이윽고 라다굽따는 전타기리가를 데리고 정궁 접견실로 향했다. 전타기리가는 왕이 아닌 사람들을 맞이하는 접견실로 가는데도 조금의 동요가 없었다. 시종 무표정한 얼굴로 라다굽따를 뒤따라갔다. 아쇼까가 전타기리가를 보더니 조금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쇼까가 물었다.

"그대는 지옥궁전 옥주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왕님, 자격은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저는 지옥궁전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한 번 말해 보라."

"죄를 지어 지옥궁전에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지옥궁전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 것입니다. 공포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또 한 가지 원한다면 지옥궁전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처형장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죄인들은 순간적이나마 아름다움에 취해 죽는 두려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전타기리가의 말에 아쇼까는 기묘한 매력을 느꼈다. 악마가 손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쇼까가 말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또 원하는 것이 있는가?"

"옛 마가다국 땅에는 불교사원이 많습니다. 어느 날 불교사원을 지나다가 지옥에 대한 불경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불경대로 지옥궁전을 꾸미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구나."

아쇼까는 전타기리가에게 지옥궁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권을 주었다. 라다굽따에게 지원해 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수상, 전타기리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오."

"대왕님, 지옥궁전의 옥주를 임명하셨으니 앞으로는 대왕님 뜻대로 통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쇼까 접견실을 나온 라다굽따가 전타기리가에게 물었다.

"불경에는 지옥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소?"

"서너 개의 지옥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겠습니다."

전타기리가는 라다굽따에게 자신이 불교사원에서 들었던 불경 속의 10개 지옥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다음과 같았다.

도산지옥 : 칼날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산길을 걸을 때마다 칼에 찔리는 지옥.

화탕지옥 : 펄펄 끓는 무쇠 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지옥.

검수지옥 : 칼날이 숲처럼 우거져 걸어갈 때마다 살이 한 점씩 떨어지는 지옥.

발설지옥 : 집게로 혀를 길게 뽑아 소가 밭을 갈듯 쟁기로 갈아버리는 지옥.

독사지옥 : 독사들에게 온몸이 감긴 채로 물려 뜯기는 지옥.

거해지옥 : 톱으로 뼈를 썰고, 몸을 산채로 토막토막 자르는 지옥.

철상지옥 : 쇠절구에서 짓찧고 나서 쇠못들이 박힌 침상에 눕혀 놓는 지옥.

풍도지옥 :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차디찬 강풍에 고통 받는 지옥.

흑암지옥 : 밤낮이 없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갇히는 지옥.

라다굽따는 전타기리가의 지옥 이야기에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가 있기 때문에 아쇼까가 손에 피를 적게 묻힐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쇼까의 어머니 다르마 대비의 소원이기도 했다.〈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학 · 점술학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⑩ 선승의 효 · 불효



▶한줄요약
속가에 부모를 남기고 떠난 출가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효도를 할 수 있다. 첫째, 돌아가신 부모가 극락왕생하게 천도하는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부모가 수행하여 득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출가자의 두 가지 효행 방식

11. 속가 가족과의 절연

출가는 속가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는 것이다. 출가자에게 가족은 다가가지 말아야 하고 출가자도 가족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강고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출가자는 가족관계 탓에 간단치 않은 경우를 겪기도 했다. 황벽 희운이 노모에 대해 보인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선승들도 서슬 푸른 칼날처럼 결기를 보였다.

보문(普門, 1906~1956)은 부인과 아들을 두고 출가했다. 남겨진 가족이 밑바닥 삶을 고통스레 꾸려가는 것을 본 어른들은 보문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욕을 퍼붓고 환속시키려 했다. 1950년 어느 날, 열차 안에서 속가 동생은 삿갓 쓴 스님이 자기 형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동생이 "형님 저 현기(속가 동생의 이름)입니다"며 다가갔지만 보문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다가간 동생이 형님의 속가 이름을 부르자 보문은 다른 칸으로 빠르게 옮겨가 버렸다. 동생은 따라가며 형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보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서른에 홀로 된 부인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약과 떡과 묵을 팔았다. 십리 길을 오가며 두 마지기 땅 농사도 지었다. 아들도 미꾸라지, 메기, 잉어 등을 잡아서 5일 장을 돌며 팔았다. 끝까지 다닌 학교도 없었다. 그가 입지전적으로 단양군수가 된 신상철이다. 신상철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특히 보문이 부산 국제시장과 대구 칠성시장 등지에서 청아한 목청으로 〈반야심경〉 염불을 해주고 그곳 상인들로부터 많은 시줏돈을 받아 범어사 중건에 큰돈을 보시하고 상이군인이나 무의탁 빈민들을 도와주었을 때가 어머니와 자기가 굶어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더 야속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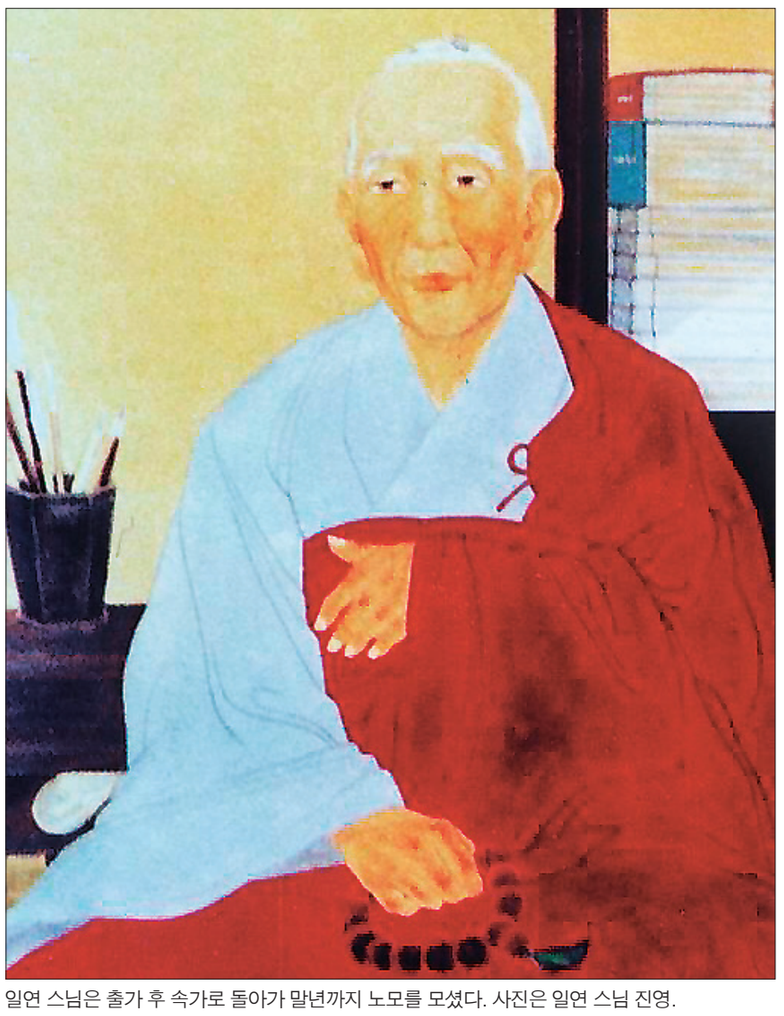
효봉은 출가한 지 10년여가 되던 때 신부를 데리고 찾아온 아들을 외면하고 돌아앉아 정진을 이어갔다. 법전(法傳, 1925~)은 출가 전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잘 때도 여동생을 밀어내고 어머니 곁에 누웠다. 그러나 본격적 수행을 시작하면서 속가로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다.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축원을 올리지 않았고 향 한 개도 꽂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사촌형이 토굴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말을 꺼내지 못하자 사촌형이 대신 말했다. 가슴앓이 병으로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막내아들을 보아야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애원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는 아버지에게 법전이 말했다. "저는 집을 떠나온 출가자입니다. 부모 형제를 위한 발걸음이라면 그쪽으로 한 발도 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떠나갔다. 얼마 뒤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전하는 부고장이 왔다. 법전은 어머니 초상에도 가지 않았다. 부모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하며 수행하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을 끝까지 지켰다.

12. 속가로 돌아간 선승

다시 속가로 다가간 출가자의 사연도 기구하다. 일연(一然, 1206~1289)은 국사로 추앙받았지만 고향 경산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상소했다.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였다. 귀향한 일연은 노모가 96세로 별세하기까지 봉양했다.

세염(洗染, 1340년대~1415)은 고려가 망하자 황급히 출가했다. 아들이 승려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안 어머니는 "네가 고려 조정의 충신이 되기는 했지만 이 어미가 아직 살아있거늘 어찌 차마 부모가 물려준 몸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통곡했다. 세염이 사죄하며 말했다. "불충하고 불효하느니 차라리 불충하기는 하되 어머니 뜻만이라도 받들겠습니다." 세염은 이내 표정을 밝게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어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가시게 했다. 머리카락을 당겨 묶으니 머리카락이 두 자나 자라났다고 했다. 승지와 참의 벼슬까지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상을 치른 뒤 가야산으로 들어가 승려 생활을 이었다.

출가자 본분 위해 속가와 절연
반면, 끝까지 부모 봉양하기도
부모 제도해 '이고득락' 이끌어
속가 가족의 연이은 출가 유도



일연 스님은 출가 후 속가로 돌아가 말년까지 노모를 모셨다. 사진은 일연 스님 진영.

고경(古鏡)은 노모가 늙어 홀로 지내시기 어렵게 되자 노모를 통도사로 모셔와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어머니께 염불수행법을 가르쳐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시게 했다.

정일(正日, 1932~2004)은 가장 치열하게 수행하는 수좌로서 10년 결사 정진으로 공부가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 조금만 더하면 일대사를 마칠 것이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정신질환과 치매를 앓게 되고 속가에 모실 가족이 없는 사정을 알게 되면서 "공부를 늦추더라도 노모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선방에서 나와 백련사의 주지로 내려갔다. 노모가 정신이상으로 발작과 착란을 일으키면 회초리질을 하면서 보살폈다. 그럴 때도 화두를 놓은 적은 없었다. 노모는 스님 아들의 무릎을 베고 아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처럼 출가자는 속가 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방편과 권도를 택하기도 했다. 부모를 모실 형제자매가 없을 때 부모 봉양을 위해 용맹전진을 미루기까지 한 것이다.

13. 출가자의 진정한 효행

일연(一然)은 말년에 노모를 모셨지만 정작 그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출가자의 효행은 좀 달랐다. 조동종(曹洞宗) 종조인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가 그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는 우리나라 승려들이 두루 읽었고 일연이 조동종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편지 내용이 일연에게 적극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동산 양개는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어 도를 닦는 데 뜻을 두시고 공에 귀의함으로써 이별의 정을 품지도 마시고 문가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라고 했고, 승려는 "도를 사모하고 선을 참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한다"고도 했다. 어머니도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나는 네가 목련존자같이 나를 제도하여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위로는 불과(佛果)에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고 부탁했다.

출가자가 선을 참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것이 동산 양개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받든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를 제도해주기를 소망했다. 과연 일연은 이런 뜻과 상통하는 출가자의 사연을 〈삼국유사〉에 실었다. '진정 스님이 효와 선을 다 이루다[眞定師孝善雙美]'에서 품을 팔아 노모를 봉양하던 진정(眞定)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하려 했으나 그 어머니가 당장 출가하라고 강권하여 바로 의상 문하로 출가했다. 3년 뒤 모친상 소식을 들은 진정은 7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 깨어났다. 의상은 진정의 어머니를 위해 90일 동안이나 화엄 대전을 강의해주었다. 강의가 끝난 날 밤 어머니는 진정의 꿈에 나타나 자기가 천상에 왕생했다며 고마워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두고 출가한 진정이 결국 어머니를 구원한 것이다. 진정의 죽은 어머니 자리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넣으면 진표(眞表)의 출가담이 된다. 진표는 출가하여 득도하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 진표는 아버지의 수행을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효도를 다했다.

속가에 부모를 남기고 떠난 출가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효도를 할 수 있다. 첫째, 돌아가신 부모가 극락왕생하게 천도하는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부모가 수행하여 득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연은 둘째를 더 바람직한 경우로 추천했다고 하겠다.

14. 출가는 또 다른 출가로 이어져

끊어진 가족관계는 더 근원적으로 복구되기도 했다. 연이은 출가를 통해서다. 상근(祥根, 1872~1951)의 어머니 창수는 두 딸을 두고 출가했다. 이어서 언니 금전(錦典)이 출가했다. 2년 뒤 상근도 출가했다. 어머니 창수가 두 딸의 은사가 되었으니 속가 세 모녀가 은사와 상좌 간 불연을 맺고 수행을 이어간 것이다. 벽초(碧初, 1899~1986)의 아버지 연등은 진표의 아버지처럼 아들과 함께 출가하였다.

법안(法眼, 1902~1955)의 출가는 질녀 응민(應旼, 1923~1984)과 생질 일타(日陀, 1929~1999) 남매의 출가로 절정에 이른 41명의 일가족 출가의 시작이었다. 장남 법안이 출가하자 아버지 추금(秋琴, 1878~1947)이 출가했다. 막내 진우(震宇)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출가했고 셋째 용학까지 출가했다. 어머니 강씨(姜氏)가 아들들을 만나러 백련암으로 갔다가 아들의 권유를 받아 출가했다. 네 형제 중 마지막 남은 용명도 해인사로 출가했다. 1940년, 법안 집안의 남은 가족들도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법안의 장인 장모와 처남 둘도 출가했고, 집안 머슴들 가족 6명도 따라서 출가함으로써 일타(日陀)의 외가 쪽 35명이 모두 출가했다. 일타의 친가는 6명이었는데 일타의 누님이며 맏딸인 응민(應旼)이 첫 출가자였다. 외할아버지 추금의 권유로 응민이 출가하자 남동생 월현(月現)이 이어 출가했다. 응민의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마련해준 다음 막내딸 쾌성(快性)과 함께 윤필암으로 출가했다. 응민의 아버지 김봉수는 1942년 일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만공 밑으로 출가했다. 이어 일타도 통도사로 출가했다. 드디어 일타의 친외가 41명의 출가가 완성되었다.

성철과 청담과 관응(觀應, 1910~2004)의 딸들도 출가했다. 불필(不必, 1937~)과 묘엄(妙嚴, 1932~2011)과 명성(明星, 1930~)이 그 딸들이다. 경허의 형 태허 성원(泰虛性圓)은 경허보다 먼저 출가했다.

출가자를 따라서 속가 가족이 연이어 출가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다. 출가한 남편이 부처님으로 돌아오자 부인 야소다라는 아들 라훌라를 시켜 부처님께 유산을 요구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라훌라의 머리를 깎게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일곱 가지 고귀한 유산을 베풀 것이다" 라훌라는 법재(法財)를 받아 세속을 뛰어넘는 상속의 주인이 되었다. 부처님은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외동아들을 출가시킨 것이다. 윤회하고 파멸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길러주신 이모 마하빠자빠디, 아내 야소다라, 사촌 아난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석가족을 출가하게 했다. 출가로 인해 조각나 버려진 가족관계는 위대하게 다시 연결되었다. 출가는 출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가였다. 선승이 끊기도 하고 잇기도 하는 것, 살활자재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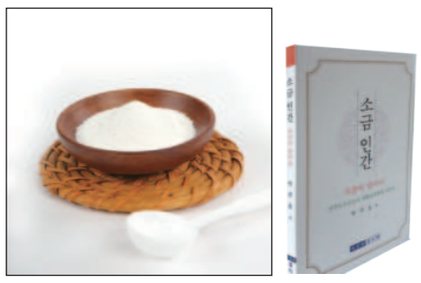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⑩ 무주상보시 수대나 태자



▶ 한줄요약

섭파국 태자 수대나는 자비심과 효성이 지극했다. 그는 자신의 자녀와 부인까지도 보시하며 보살행을 실천했다. 결국 이웃나라 주민들이 앞다퉈 귀화했고, 도적들도 그 보시행에 동참했다. 이 같은 보시행은 벽화 등에서 도상화돼 지금까지 전해진다.

보시, 수대나 태자처럼 해보자



돈황 막고굴 제428굴에 그려진 '수대나 태자 본생도' 벽화. 6세기 경 조성됐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공부하면서부터 '전생에 베푸신 가장 큰 보시와 공덕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은 항상 있었다. 불현듯 욕심 많은 어린 나에게 할머니께서 나라의 귀한 보물과 처자식을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수대나 태자(須大拏太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을까? 손녀의 이름을 거란대장경의 〈조성금장(趙城金藏)〉에서 빌려오신 분이니 당연히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으나, 팔리어경전과 대승경전들에서 '수대나 태자 본생담' 을 여럿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유통되었던 이야기임은 확실하다.

'수대나 태자 본생담' 은 '비슈반타라 자타카' (Visvantara Jataka) 혹은 '베산타라 자타카' (Vessantara Jataka)라고 불리며, 일찍이 기원전 3세기 이후 인도의 바르후트 스투파와 아마라바티 스투파(Amaravati)에서부터 간다라, 중앙아시아, 중국과 한국에서 그 현존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보시의 한계를 감히 말할 수 없는 줄거리 때문인지 이 경전이 실려있는 〈육도집경(六度集經)〉 제2권에 '보시도무극장(布施度無極章)' 즉, 보시의 끝없는 단계라는 장을 만들어 수대나태자 본생담을 기록하고 있다. 수대나태자 본생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섭파국(葉波國)의 살자(薩闍)라는 왕에게 수대나라는 태자가 있었다. 태자는 자비와 효성이 높았으며 널리 보시해 그 혜택이 중생에게 고루 닿았다. 의복과 음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하자마자 그것을 주었고, 금은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와 수레 · 말 · 전답 · 주택 따위를 구하여도 주지 않음이 없었다. 왕에게 '라사화대단' 이라는 흰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힘이 60마리의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어 전쟁에서 섭파국이 번번이 이겼다. 이에 적국의 왕이 태자의 어짐을 이용하여 여덟 바라문을 보내어 흰 코끼리를 달라고 하자, 태자는 코끼리에 금은 보배를 실어 바라문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들이 왕에게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신묘한 코끼리를 적국에 준 태자를 출궁시켜야 한다고 간청했다.

왕에게 쫓겨나면서도 태자는 사재를 털어 궁핍한 백성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태자비 만지(曼坻)와 아들 야리(耶利), 딸 계나연(罽拏延)을 데리고 단특산(檀特山)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처음으로 만난 바라문이 구걸하자 입고 있었던 보배와 옷을 모두 주어 버렸다. 다시 처자를 수레에 태우고 가는데, 두 번째 만난 바라문이 말을 원하여 말을 주고, 태자가 직접 수레를 끌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바라문이 수레를 달라고 하여 수레를 주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걸어서 21일 만에 단특산에 도착한 태자 가족은 나무와 풀로 엮어서 집을 짓고, 머리는 묶고,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과일을 먹고, 샘물을 마셨다.한편 다른 나라에 구류손(鳩留孫)이라는 늙고 가난한 바라문에게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힘든 일을 시킬 종을 원하여 보시로 널리 알려진 수대나 태자의 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태자의 거처를 묻는 구류손에게 백성들이 보시를 행하다 쫓겨난 태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알려주지 않자, 거짓으로 섭파국 왕과 여러 신하들이 태자를 돌아오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를 들은 한 사냥꾼이 태자의 거처를 가르쳐 주어 태자를 만난 구류손이 두 아이를 원하자, 어머니를 찾으며 슬피 우는 아이들을 묶어 바라문에게 주었다. 그때 숲에서 과일을 따다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돌아오는 태자비를 보고, 제석천이 태자의 서원이 무너질까 염려되어 사자, 이리, 범으로 변하여 길목을 막고 구류손과 아이들이 멀리 갈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태자비가 돌아와서 바라문에게 두 아이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통해하며 눈물이 그치질 않으니, 제석천이 마지막으로 태자의 진심을 시험하였다. 제석천이 바라문으로 변하여 태자비를 원하자 곧 태자비를 넘겨주려는 태자에게 감동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태자가 답하길 큰 부자가 되어서 항상 보시를 행하고, 지금보다도 욕심이 없도록 하고, 부모님과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해달라 하였다.마침 구류손의 아내가 귀한 두 아이들을 비싼 값에 팔아오라 성화를 부려서, 구류손은 섭파국의 왕에게서 두 손자의 값으로 은전 1천과 황소와 암소를 각각 백 마리를 받았다. 두 손자를 만난 왕은 사자를 보내어 태자 내외를 데리고 오라 명하였고, 태자가 성에 돌아와 다시 보시하자 이웃 나라의 고통받던 백성들이 모두 귀화해 적들도 어짊을 숭상하고 도둑이 다투어 보시하였다고 한다."

섭파국태자 수대나 자비 지극해
자기아들, 부인까지 보시하기도
지극한 보살행, 벽화 등 도상화
고려代 전해져 보협인탑 도해돼

위의 〈육도집경〉에서는 흰 코끼리 '라사화대단' 이 60마리의 코끼리와 맞먹을 정도로 힘이 세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팔리어 대장경의 547번째에 기록된 '베산타라 자타카' 에서는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는 상서로운 코끼리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태자의 두 아이를 데려가 할아버지 왕에게 큰돈을 받은 탐욕스러운 바라문 구륜손은 주자카(Jujaka)라는 이름으로, 데바닷타(Devadatta)의 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팔리어 자타카에서 주자카는 왕에게 받은 많은 돈으로 산 새집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체해서 죽었고, 상서로운 코끼리는 적국 칼링가에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수대나태자 본생담을 묘사한 이른 사례로서 3세기경 제작된 아마라바티 스투파의 조각을 보면 이야기를 매우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의 상단에 태자가 상서로운 코끼리 라사화대단을 적국 칼링가국에서 온 바라문들에게 진귀한 보물과 함께 건네주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그리고 화면 중앙 아랫부분에 섭파국에서 추방돼 단특산으로 향하는 태자의 가족 앞에 수레와 말을 달라고 청하는 바라문이 표현돼 있다. 화면 중앙 윗부분에는 숲과 오두막을 배경으로 어깨에 바구니를 메고 과일을 따러 숲으로 간 태자비 그리고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길 청하는 바라문 주자카(=구류손)와 아이들의 손을 묶어서 건네는 태자가 묘사되어 있다. 이어서 화면의 오른쪽은 용서받은 태자가 헤어졌던 아이들과 함께 보시를 이어나가는 장면이 잘 표현돼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쿠차(庫車)지역 키질석굴에도 7 · 8 · 17 · 38 · 69 · 81 · 157 · 179굴 8개의 굴에 수대나태자 본생담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말경에 조성된 키질석굴 38굴의 천정 중앙에 그려진 이 벽화는 마름모형의 화면에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한 장면을 담고 있다. 그림을 보면 오두막을 배경으로 앉은 태자가 두 아이의 손목을 묶을 끈을 건네고 있으며, 화면 왼쪽에 파란색 피부에 붉은 머리카락의 바라문이 두 손으로 그 끈을 받으려 하고 있다. 키질석굴에 도해된 57종의 본생도들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만을 묘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화공은 수대나태자 본생담에서 태자가 두 아이를 탐욕스런 바라문에게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의 처지가 애달프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에도 북주(北周, 577~581)시기부터 수대(隋, 581~619)까지 428 · 419 · 423 · 427굴에 도해 되었다. 6세기경 그려진 막고굴 428굴의 수대나 본생도는 중국식의 서술적인 표현방법으로 이야기의 순서가 'S' 자 형태로 이어져,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 왼쪽 상단에 궁전을 배경으로 태자가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을 보시하는 장면과 궁전 안에 왕관을 쓴 왕과 마주 앉아 있는 태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여덟 명의 바라문이 태자에게 상서로운 코끼리를 얻어 기뻐하는 모습에 이어서 중단 오른쪽에 코끼리를 탄 바라문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 쫓겨나게 된 태자가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장면과 중단 왼쪽에 수레에 태자비와 두 아이를 태우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하단 왼쪽에 길에서 만난 바라문에게 말 · 수레 · 옷을 벗어주고 두 아이들을 어깨에 메고 길을 가는 태자 부부와 숲속의 오두막이 표현돼 있으며, 오른쪽 끝 두 아이를 묶어서 끌고 가는 바라문의 모습이 묘사돼 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려져 있지 않으나, 끝없는 보시를 행하는 수대나태자의 고된 수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보시와 공덕의 끝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자문에 수대나태자 본생이라고 거리낌 없이 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인도를 건너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보협인탑에 도해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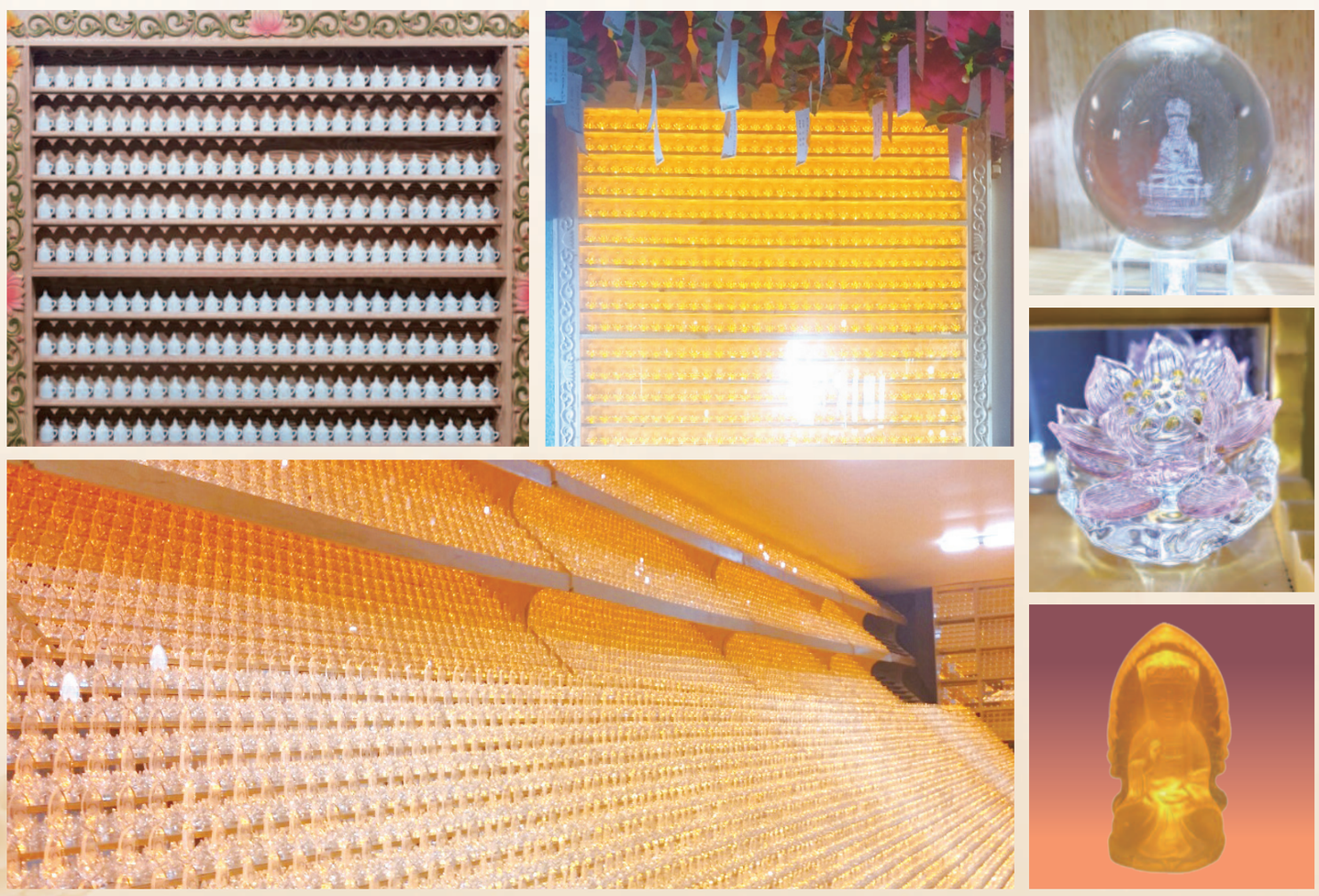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박원자의 母情佛心 33 수도암 원제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수도암에서 수행 중인 원제 스님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출가를 선언했다. 단호하게 출가하는 날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왜 출가하냐"며 울었다. 수행하던 어느 날, 철자도 띄어쓰기도 안 된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다. 아들 스님은 모정이 사무쳐 숨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꼭감 잘 받았습니다"

〈곶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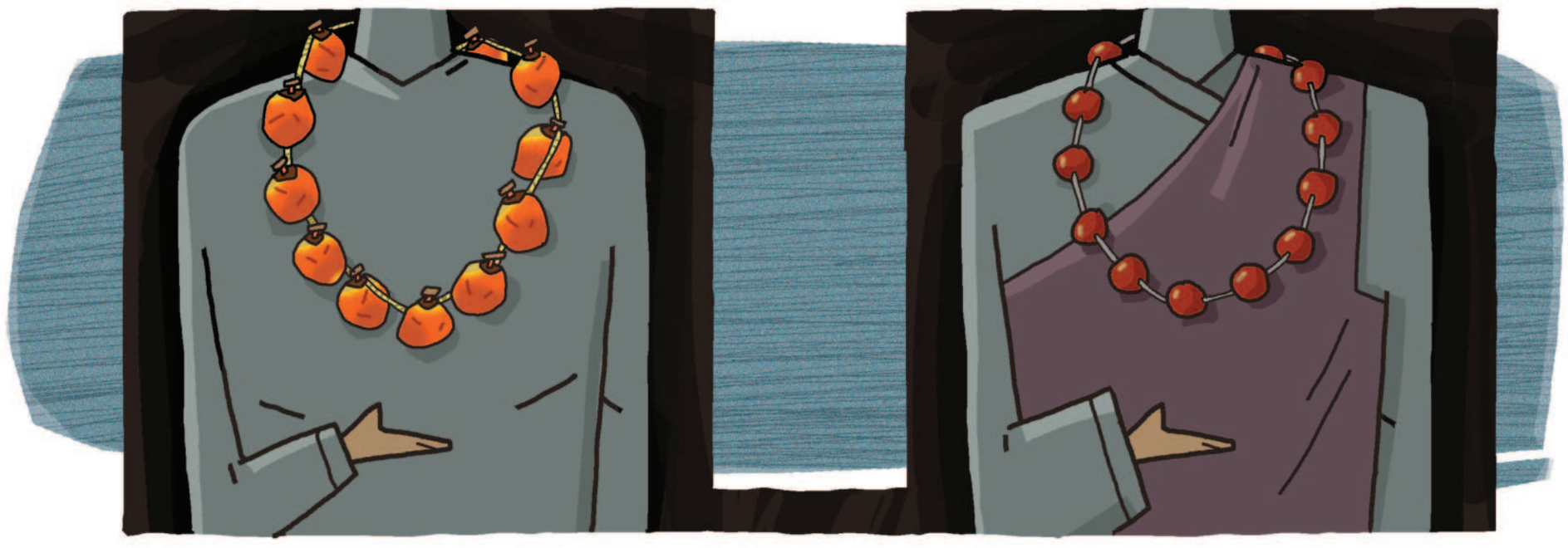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학졸업을 앞두고 선언한 출가
모친은 "왜 출가하냐"며 울먹여
철자 · 띄어쓰기 못한 모친 문자
어머니 마음사무쳐 숨어 울었다

십오륙 년 전이다. 해인사 퇴설당을 자주 드나들었다. 종정이자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고, 필자는 그때 그 스님의 일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퇴설당문은 늘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낮은 담 너머로 종정을 모시는 시자 스님들이 보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나와 문을 열어주곤 했다. 단정한 몸가짐에 풋풋한 젊은 스님들을 보면 엄마 마음으로 돌아가 흐뭇한 웃음이 피어오르곤 했다. 새로운 출가의 길 앞에 서있는 설렘이 보였고,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그곳에 있는 자체만으로 그들이 빛나보였다. 시자 스님들이 내온 찻상을 마주 하고 앉아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법전 스님의 일생을 들었다.

책이 무사히 세상에 나왔고 십 수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때 그 시자 스님들은 종정스님의 제자 혹은 손상좌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 선승으로 또 교계 방송에서 인기 있는 스님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 가운데 유난히 키가 컸던 행자 시자가 수도암의 원제 스님이다.

어느 비구니스님 한 분이 '모정불심' 의 주인공으로 원제 스님을 추천했다. '원제 스님 글이 좋더라' 는 것이 이유였다. 여든이 넘은 노스님께서 보았다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와 〈다만 나로 살 뿐〉을 구입했다. 읽으면서 입적하신 스님의 은사인 법전 스님을 떠올렸다. '순수' 와 '진심' 이라는 공통분모가 느껴졌다. 그리고 최근 몇 번째 읽고 있는 서양의 영성가 아디야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를 떠올렸다. 고통의 원인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에 감탄을 거듭했던 그 책과 결이 흡사하게 느껴졌다.

출가한 지 16년 차인 원제 스님은 스물여덟이 되던 설날 아침에 출가했다. 차례와 세배를 마치고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바둑판에 눈을 둔 채 외면했다. 누이 둘은 발을 동동 굴렀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아들의 팔을 놓지 못한 채 울면서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 나왔다. 아들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소녀가 울고 있구나. 무엇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아들은 알고 있었다. 저리 서럽고 안타까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것을. 일찍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 를 깨닫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 자리를 찾아 가게 마련인 것, 그래서 힘들겠지만 버텨보시라고 중얼거렸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한 달 반쯤 전에 가족회의를 소집해 출가를 선언했었다. 한 달 동안 인도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와 설날 아침에 출가할 것이며,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도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채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었다.

"네가 왜 출가를 하니?"

출가가 생사해탈의 길임이 너무도 분명해서 그 길을 찾아 떠나는 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앞으로 제가 갈 길이예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 엄마도 알지 않았어요?"

서울로 유학해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군대에 다녀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영 취업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도무지 얘기하는 바가 없었다. 해인사로 취업할 준비를 하면서 대학 4학년 때 〈육조단경〉을 비롯해 조사어록들을 읽고 있던 아들이었으나 대전에 사는 어머니는 이를 알 길이 없었다.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 딸에게 아들의 근황을 물으니, 개량 한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방에 향을 피워놓고 벽을 보고 계속 몇 시간씩 있다고 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아들이 저러다 출가하지나 않을까 불안해했던 어머니였다. 그랬던 어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며 아들에게 매달렸다.

"아니야, 나는 하나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왜 출가를 한다는 거야?"

어머니의 순진한 거짓말 앞에서 아들은 크게 웃고 말았다.

출가는 일생일대의 큰일이었다. 한 번 해볼까도, 가족과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었다. 그래서 하루 꼬박 여섯 시간씩 좌선을 하고 여자 친구와도 헤어졌다. 면밀히 준비해왔으므로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결정이었다. 아들은 그렇게 미련 없이 집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일찍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지금도 어머니를 보면 한 소녀를 마주 대하는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생각의 지속력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런 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속력이 길면 생각으로 치우쳐버리는 측면이 있는데, 어머니는 생각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강해서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울리며 지갑을 책상 위에 둔 채 주민등록증, 안경 하나, 해인사까지 가는 차비 2만 원만을 들고 떠났던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6년 후 봄이었다.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은 뒤 선원에서 정진을 하던 중, 나라밖 세상 속에서 좌선을 해볼 생각으로 세계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와 부모님, 누이 둘과 그에 딸린 식구들이 수도암으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 앉아있었다.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여전히 '사람' 들로 가족들이 다가왔다. 출가할 때의 생각은 맞았다. 어머니는 이제 울지 않았다. 그때의 원망과 서운함을 잊은 것 같았다. 스님은 그들을 '사람들' 로, 가족들은 스님을 한 사람의 '출가승' 으로 대하며 담담하게 차를 마셨다. 그 어떤 감정이나 모양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은 확실했다.

2년 동안의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뒤부터 가끔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추석 때면 대전의 부모님 집을 찾아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차례를 지낸 다음 수도암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안거에 들어가 새해를 맞을 때면 어머니께 크고 실한 곶감과 한과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송광사에서 동안거를 보내던 때였다. 택배를 받은 어머니가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꼭감과한과을잘받았습니다건강하셔요"

오후 정진에 들어가 좌복에 앉아있는데 띄어쓰기도 없고 철자법도 맞지 않은 이 문자가 화두 대신 들어왔다. 어머니는 왜 곶감을 '꼭감' 이라고 썼을까. 그러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욕실로 들어가서 흐느껴 울고 말았다. 한 소녀가 어머니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처음 어머니가 어머니로서가 아닌 순수한 소녀처럼 느껴졌던 게 대여섯 살 때쯤이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나도 죽고 엄마도 아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일이 너무 큰 충격이고 심각해서 엄마에게 '엄마, 나 죽는대' 하며 슬피 울었다. 아들의 우울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깔깔 웃었던 어머니는 그때 스물아홉쯤이었다. 엄마이기보다는 그저 소녀일 나이였다.

중학교 때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했던 가장의 박봉으로는 아이들 셋을 키우기가 힘에 겨웠기 때문에 연작은 가게였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 임원인 탓에 어머니회 모임에 다녀온 어머니가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많이 배운 어머니들 틈에서 초등학교만 나온 당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남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이름을 다 읽고 아는데 자신만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어머니 말에 가슴이 먹먹했었다. 아들에게 알파벳을 배우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차 이름을 가볍게 불러대던 어머니였다.

3년 전, 예순다섯의 어머니에게 첫 책을 보냈다. 시 쓰기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네가 이 정도 깊이 있는 글을 쓴 줄 몰랐다' 고 하셨다. 아마 어머니는 다 읽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도 내 아들이 괜찮은 스님이 된 것은 아신 것 같았다. 다니는 공주 동학사에 가서 '원제 스님 엄마' 라고 하면 환영해주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 스님이 훌륭한 은사 스님을 한동안 시봉하며 출가자의 법도를 몸에 익힌 것을 모른다. 젊음을 다 바쳐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했는지도 모른다. 2년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도 매일 108배를 거르지 않은 것도,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마음을 속이지마라)이라는 말뚝 하나를 가슴에 품고 다닌 여행을 통해 마음의 지평이 얼마나 드넓어졌는지도 모른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활발발한 스님이 된 것도 모른다. 이제 선원을 졸업한 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방송에 나와서 법문도 하고 책도 출간한 아들 스님을 보면서 제 자리를 잘 찾아간 것 같다고 느낄 뿐이다.

아들 스님의 책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 스님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든다. 출중한 출가자를 낳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작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여래의 사성제라야 '제일의' 지혜

〈第一義〉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⑳ 사성제(四聖諦)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연각이 처음으로 성스러운 진리(聖諦)를 관찰하고는 한 지혜로 모든 주지(住地)를 끊습니다. 한 지혜로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공덕을 증득할 줄을 알고, 또 이 네 가지 진실한 법(四法)의 뜻은 잘 압니다. 세존이시여,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는 없고 네 가지 지혜가 점점 나아갈 것이 없으며, 네 가지 조건(四緣)이 점점 나아가는 것이 없으니, 점점 나아감이 없는 법이 곧 출세간의 상상지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금강으로 비유하는 것은 곧 제일의(第一義)의 지혜이나,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연각으로서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성제(聖諦)를 처음 본 지혜는 제일의의 지혜가 아니니, 세존이시여, 둘이 없는 성제를 아는 지혜로써 모든 주지를 다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 · 응 · 등정각은 성문 · 연각의 경계가 아니니, 불가사의한 공의 지혜(不思議空智)로써 온갖 번뇌의 장애를(煩惱藏)을 끊어버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 번뇌의 장애를 끊으면 곧 최후의 완성된 지혜(究竟智)가 되나니, 이것을 가장 으뜸가는 지혜(第一義智)라 합니다. 처음으로 성제를 안 지혜는 최후의 완성된 지혜가 아니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향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성(聖)의 의미는 성문 · 연각의 경계가 아닙니다. 성문 · 연각은 한정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성문 · 연각은 부분적인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이름을 성인이라 하나 성스러운 진리(聖諦)라 하는 것은 성문 · 연각의 법이 아니며, 성문 · 연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리는 여래 · 응 · 등정각께서 처음으로 깨달아 아시고, 그 후에 무명의 껍데기에 가려 있는 세간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시고 연설하셨으므로 성스러운 진리(聖諦)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없이 성스러운 진리'는 불교의 근본 교리라 할 수 있는 사성제(四聖諦)를 두고 한 말이다. 〈승만경〉에서는 성문과 연각의 사성제는 무명주지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의 지혜가 되지 못한다 하였다. 여래의 사성제라야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가 되며, 제일의 지혜가 된다 하였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성제를 닦아 번뇌를 끊어가는 이승들의 수행이 여래의 경지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성제가 단순한 하나의 교리해설이 아니라 번뇌를 없애는 수행의 실천요목으로, 사성제를 닦음으로써 번뇌를 끊는다는 것이다.

사성제는 인간의 인식과 수행이 깨달음으로 향할 때 나타나는 인과를 밝힌 교설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직시하여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부처님 최초의 설법이 사성제인데,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의 두 가지 면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을 가지고 말하면 고(苦)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고성제(苦聖諦)이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왜, 괴로움인가?' 하는 원인을 밝힌 것이 집성제(集聖諦)이다. 모든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고 죽는 생사의 원인마저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번뇌 때문에 태어나고 번뇌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생이 윤회를 하게 되는 것도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苦)의 결과와 그 원인을 유루경계에서 밝혀 놓은 것이다. 다음 멸성제(滅聖諦)와 도성제(道聖諦)는 무루경계의 인과관계다. 괴로움이 소멸되어 고요해진 것을 열반이라 하여 올바른 인식과 수행을 통해 열반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열반을 얻기 위하여 실천하는 방법이 도성제이다. 여기에 주로 팔정도(八正道)가 제시된다. 열반을 얻는 원인으로 팔정도가 제시되지만 결국은 번뇌를 끊는 것이다. 이 번뇌를 끊는 정도가 매우 심오하여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에서는 상상지(上上智)를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상상지(上上智)란 가장 뛰어난 지혜로 하지(下智), 중지(中智), 상지(上智)보다 더 높은 지혜를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쉼 없는 염불 수행으로 '싸띠힘' 키워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㊸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싸띠 수행을 통해 마음을 주의집중하게 단련시키면 마음은 정화되어 탐진치 삼독심 등의 오염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진여본성으로 되돌려 청정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싸띠의 힘이 강해지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삼독심 등의 오염심과 내면에서 생겨나는 번뇌 망상들을 막아서 항상 진여본성과 계합시켜 본래 청정심을 유지시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염불을 통해 싸띠의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피곤하거나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마음 전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싸띠가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순간 눈 · 귀 · 코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 대상을 접촉을 할 때마다 마음의 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집중' 하는 싸띠의 힘이 약하게 되면 발생하는 마음작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발생하는 마음작용을 싸띠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의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마음 작용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접촉 다음에 생겨나는 마음이 맑고 가벼우면 행복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둡고 무겁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접촉 다음에 발생하는 마음의 느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싸띠는 접촉 다음에 생겨나는 마음 작용에 관여하여 마음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듭니다. 이처럼 싸띠는 마음의 밝고 어두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 싸띠[念]를 잘 훈련시켜서 마음의 본래 청정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싸띠가 대상을 향해 집중하면 싸띠가 집중되는 곳으로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뇌파가 함께 집중됩니다. 이때 싸띠 힘[念力]의 크기에 따라 텔레파시 힘도 함께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싸띠가 집중되는 곳으로 마음에 저장된 기억들도 함께 집중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기억 이미지들의 양과 질에 따라 마음을 가공 편집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심리현상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을 통해 싸띠[念]의 힘이 커져 일심상태가 이루어지면 삼매 속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가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매가 더욱 깊어져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공덕과 지혜를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한 염불수행을 끝없이 실천하여 싸띠힘을 키워서 불과를 증득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다음은 염불에서의 '불(佛)'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불(佛)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로 붓다(buddha)를 우리말로 음역한 말입니다. 붓다의 뜻은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佛)은 일체법(一切法), 즉 우주 만법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서 다할 수 없는 진리를 체득한 대성자(大聖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佛)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自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닫게[覺他] 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佛)에게는 깨달음의 능력이 전지전능하고 충만하게 갖춰져 있다[覺行圓滿]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⑳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①

"오온(五蘊)은 내가 아니다"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물질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느낌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지각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형성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수행을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이나,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 삼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가르침을 설하신다.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어서, 평상시 주고받고, 문답하는 말씀 그대로다. 거창한 지식이나 학문적인 견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수행은 어렵게 느껴질까? 그것은 수행자가 반드시 새겨야 할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다.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되어있지 못하면, 많은 시간 동안 좌선을 하고, 학문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더라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야심경〉에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五蘊)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라는 구절을 상기해 보자. 스님이든 불자든 예불 시간에 수없이 독송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으로만 글자를 따라 읽고, 표면적인 의미를 새기는 것에 만족한다. "오온은 공한 거구나" 하고 언어가 가리키는 뜻만 이해하고 말았을 뿐, 오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불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의 깊이를 다하지 못하고 소모된다는 것이. 수박을 맛보지도 못하고 겉만 핥고서 수박 맛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다.

수행을 지어갈 때, 공(空)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내가 고요해야 하고, 아무것도 나타나면 안 되고, 텅 비어야 하고, 성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여 수행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공(空)이라는 말 때문에 성찰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空)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은 "오온은 내가 아니다"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아는 언어로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게 하셨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간직하는 것이 고요이고,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간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간직하는 것이 성성해지는 것인 줄 알면 깊은 성찰을 하는 것이다.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찰로써 알려진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아는데 무슨 다른 경(經)이 필요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간단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엉뚱한 길만 찾고 있으니,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라는 전도된 자아가 발자국을 만들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발자국을 가만히 따라 가보면, 항상 저절로 '나'라고 되어 있는 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왜 내가 아닌가?'라는 것에 조금씩 의문이 생긴다.

몸을 '나'라고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나'라고 하고 있고,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나의 느낌이라 알고 있고, 생각을 나의 생각이라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나의 생각일 뿐인데, '왜 나의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수행은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오온이 나라는 느낌과 생각과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벗어나면 느낌과 생각과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9호 | 17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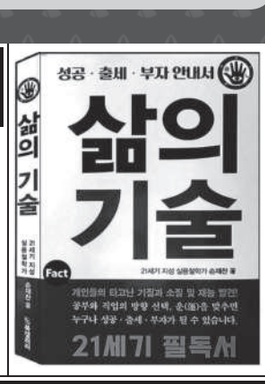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입멸후 2,566년만에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라운 유훈을 완전히 공개한다!!

※ 신간 ※
『대반열반경의 비밀한 뜻을 밝힌다』
010-3514-7084

부전스님 모십니다.
출가하실 행자님 모십니다.
서울부근 수도권지역 사찰
010-4127-0277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766-3200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8426-9963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정통 특수 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남 범음 · 범패 교육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문의 010-9421-9364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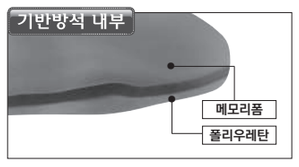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9호 | 18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북 영덕 저렴한 토굴 매매
- 부지 총면적 : 393㎡(119평)
- 건물 총면적 : 122㎡(37평)
- 가액 : 1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3억 3천(절충가능)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안정적인 상가원룸

- 충남 아산 신축건물 임대완료, 상가포함 공실無
- 대지 : 371㎡(112평) 건평 : 453㎡(193평)
- 인수금 : 2억 8천
- 이자내고 순수입 월 350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 요사체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 모든 건물은 무건물입니다. ● 유실수 다랑감, 자두, 호두, 매실, 두릅, 오디, 머위, 산에는 약초, 송이버섯 ●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 가액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대지 : 110평
- 법당, 산신각, 텃밭
- 시설비 3천만, 보증금 3백만, 월 20만 또는 매매 1억 3천

010-9392-11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체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영천 포교당 안내

- 72평, 2층 독채 (법당, 사무실, 방2, 다각실, 공양실, 공양간, 화장실1, 창고2, 옥상)
- 주차장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500 / 월 60만원 (시물권 있음)

010-5065-95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2평, 법당 : 30평 산신당 : 5평, 요사 : 방 5개 화장실 : 2개(외부1/내부1) 주차공간 많음
- 가액 : 2억 7천 (땅값만 받습니다)

010-7661-4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 : (전)신축 가능
-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한림면 사찰
- 2층건물 70평, 법당, 친견실, 산신당, 용왕당, 칠성당, 샤워실, 공양간및 주방
- 권리금 협의가능
- 전세금 500만원
- 월세금 45만원

010-3945-8859

아름다운 사찰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언제든 양도가능, 경남 의령군 소재
- 가액 : 협의(은행융자 5천만원)

010-2607-711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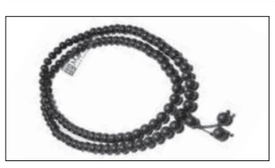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⑩ 경기도 김포 금정사 소나무

‘늘 푸름’ 속에 담긴 삶과 죽음 설법

조선 16대 왕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 능침이 있는 김포 장릉을 답사한 뒤 다시 입구에서 ‘아름다운 김포 문화유산’ 안내도를 본다.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시지정 향토유적을 타고 내려오다 마지막 전통사찰 목록에서 눈이 번쩍인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금정사로 발길을 향한다.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걷는 게 불안해 공원묘지로 들어선다. 길가에서는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보랏빛 제비꽃들이 겨울을 나느라 이 빠진 듯한 봉분 잔디 사이사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공장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 산 자들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쯤 금정사가 있을지 분간이 안 돼 길을 묻는데, 조금만 더 직진하면 절을 알리는 큰 대문이 있다고 한다. 가서 보니 중앙승가대학교라는 현판에 난감해 하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오래 자란 듯한 느티나무 넘어 흙담에 기대어 있는 금정사 표시가 위로를 주는 듯 다가온다.

금정사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으며, 당시에는 고상사라고 했단다. 인조가 장릉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있던 고상사를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봉릉사(奉陵寺)로 이름을 바꾸어 원찰로 삼았다는데 이후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성화대사가 대한제국 말기 김포를 관장하던 현청을 일제가 강제로 헐어 낼 때 출입문 중 목재와 주춧돌 등을 구입하여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고, 그 뒤 한국전쟁으로 불타 버린 사찰을 1974년 주지 정념과 고근이 대웅전과 범종각을 지었단다. 그리고 절의 뒷산이 금정산이고, 맛이 좋은 샘물이 솟아나 ‘하늘우물’이라는 뜻의 금정사(金井寺)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다.

금정사 안으로 들어서는데 신발에서 흙냄새가 올라온다. 비포장길이다. 깊은 산에 있는 절도 아닌데 하는 의아심보다 덜컥 반가움이 앞선다. 주변 풍경이 궁금해 살펴보니 녹색의 잎들과 확연히 다른 푸른색의 플라스틱 물바가지가 보이고, 그 위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늘로 오르고 있는 소나무가 멋들어진 운치를 준다.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어주는 피톤치드를 한껏 들이켜는 척하고 사부작사부작 곡선의 비탈길을 오르다 곁눈으로 들어온 건물을 보는데, 산 철쭉 넘어 검은빛 기둥을 타고 가니 금정사라는 현판을 마주한다. 전체적으로 단청 하나 없는 모습에 혹 요사채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윽고 왕릉 사찰이었다는 생각에 다다른다.



경기도 김포 금정사 소나무.

〈조선 왕릉의 사찰〉을 보면, “조선 전기 능침사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찰인 동시에 유교식 사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선왕 선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는 점에서 불교식 추모공간이었지만, 설립 명분이나 건물 형태에 있어서는 유교식 조상 숭배 시설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글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통치이념은 유교였지만, 왕릉이라는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유불선 동양의 핵심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관념이 능침사 건물 형태에까지 반영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요사채로 쓰이는 그 건물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 산 아래에 단청을 하고 있는 맞배지붕의 작은 대웅전이 보이고, 그 앞 너른 마당을 지나 한 계단 내려오면 단청 없는 무루당이 사찰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대웅전 왼쪽으로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곳에 있는 본원지 또한 단청이 없는데, 그 끝에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누마루가 있다. 그래서 절에 온 건지, 유교학자 집에 온 건지 헷갈려, 경내를 쭉 지나 범종각 앞에 선다.

둔덕진 곳에서부터 나무를 살펴보니 유독 소나무들만 보이는 것 같다. 그 연유를 곰곰이 떠올리니 방금 전에 장릉에서 본 소나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왕릉에 소나무를 심는 이유로 죽은 자가 사시사철 푸르게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 있고, 소나무 송(松)자를 보면 공적(公的)인 것의 공(公)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살아 있는 모든 왕들이 사적인 정치를 하지 말고 공적인 정치를 하라는 선왕의 어명 같은 걸 늘 인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나무에 담긴 상징을 잠시 망각시키는 게 봄철에 날리는 송화(松花)가루다. 이는 소나무의 수꽃이삭으로 노란빛 꽃가루인데, 누구는 이를 모아 다식을 만들어 입을 호강시키고, 누구는 알레르기 때문에 연신 기침을 해댄다.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 수꽃가루가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새 가지가 목질화되면서 바늘잎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한다. 이 무렵 소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된다. 바로 새 가지 끝에 봉긋 솟아오르고 있는 암꽃, 즉 밑씨 솔방울이 자주색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 수분을 막기 위한 정교한 생장에 고개가 숙여진다.

조선 왕릉을 두고 죽은 자의 궁궐이라고 한다.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지 않는 사유다. 소나무가 늘 푸른 것 같지만, 해마다 새 잎이 나고 묵은 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정사를 가득 품어주고 있는 소나무에서 그 깊은 뜻을 헤아려본다. 내 삶과 죽음을 굳이 구별하지 말라는 무언의 종소리처럼!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⑩ 박서영의 ‘마음이라는 표범 한 마리’

누구나 마음속에 ‘표범’ 하나가 산다

마음이라는 표범 한 마리/ 박서영

표범은 그와 나 사이의 일주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 서로 만나곤 했다
야수성을 가진 마음이 직립으로 서 있다
왜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 것일까
납작하게 짓눌려지지 않는 것일까

온몸에 풍랑을 그린 짐승처럼 바람이 분다
허공에 바람의 무늬가 구불구불하게 새겨져 있다
낙동강 가의 모래 능선처럼
사하라 사막의 모래 능선처럼

마음은 왜 바싹 타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펄떡이는 풀밭 위를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짐승 한 마리
앉아 있는 마음이 달려 나가는 마음을 붙잡는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불길한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마음에 바람이 분다
표범의 등줄기가 꿈틀거린다
표범은 일테면 그와 나 사이의 일주문이다

언제부터 마음으로 둔갑해
내 몸에 들앉게 되었는지 그건 나도 모른다

– 박서영 시집,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 천년의 시작, 2006

표범, 하니까, 먼저, 가수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떠오른다. 좀 길지만, 시 감상을 돕기 위해서 전문을 인용해본다.(이 기회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도 세상살이에 큰 힘이 될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 몇 방울씩 떨군다. 참고로 가사가 워낙 긴 탓에 조용필 씨 자신도 이 노래 가사를 외우는데 3~4년이 걸렸다고 한다. 참고 하나 더, 노래방에 가서는 절대로 부르지 말 것, 인기 다 떨어짐)

“(독백)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나면 위대해지고/ 자고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 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노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독백)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위안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라구?/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있는 내 청춘에 건배// (노래)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독백)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남으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 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남으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 되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노래)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라~ 라~ 라~”

자, 이제 박서영 시인의 ‘표범’과 가수 조용필 씨의 ‘표범’을 비교해보자. 먼저 표범은 두 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용맹, 왕, 군림, 위대함 등을 상징한다.

큰 꿈을 이룩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뜻한다. 두 번째는 맹수, 거침, 사나움, 독불장군 등을 상징한다. 함부로 날뛰고 사납고 남을 포식의 대상으로 삼는 자만심을 뜻한다.

박서영 시인의 표범은 두 번째 상징을 갖고 있다. 조용필 씨의 표범은 첫 번째 상징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표범의 결론은 같다. ‘야성(野性)의 직립’으로 서서 ‘휘어지지’ 않고 ‘납작하게 짓눌려지지’ 않지만 끝내는 ‘마음에 (따스한) 바람’ 불고(이상 박서영 시인), 해발 1만9710피트(5895m)의 눈 덮인 킬리만자로에 살지만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하’고 ‘라일락과 밤을 사랑하’는(이상 가수 조용필)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박서영 시인은 그것을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일주문’을 통해, 조용필 씨는 킬리만자로라는 이상향〈聖者(성자)〉을 통해(물론 아열대 정글에 살고 있는 표범이 만년설로 뒤덮인 킬리만자로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겠지만) 가능으로 바꾸고 있다.

불교가 시(노래)를 만났을 때, 아니 시(노래)가 불교를 만났을 때만이 생겨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설득이다. 박서영 시인과 가수 조용필 씨는 표범이라는 야성의 마음이 불교(일주문, 킬리만자로)를 만나 어떻게 순화되고 다듬어지는지를 고도의 상상력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❺ 주의력 강화 명상



▶한줄요약
마음챙김도 습관이 필요하기에 의도적으로라도 시도해야 한다.

주의력 도둑 잡는 법 '의도적 마음챙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 밥에 양념을 하고 심지어 자기 밥을 남에게 덜어주는 데서 행복감을 느낀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삶에서 내가 간절히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평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은 습관적이고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마냥 켜져 있는 텔레비전처럼 무의식에 지배되는 자동모드의 삶일 뿐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그의 저서 〈굿라이프〉에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 즉 의식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의식 경계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슨 영화를 볼지 등 지극히 사소하고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지 등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채롭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를 일(Work), 사랑(Intimacy), 영성(Spirituality), 초월(Transcendence) 네 가지로 분류한다. 각각의 앞 글자를 따서 'WIST'라고 부른다. 이중 '일'은 의식을 지배하는 첫 번째 주제이자 가장 강력한 주제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의식 전반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에서 의미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이자 결론은 습관적인 삶으로부터의 탈피다.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중국의 탕왕(湯王)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희대의 폭군 걸왕이 지배하던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은 세숫대야에 '구일신일일신우일신(苟日新日日新又日新)'이라는 아홉 글자를 새기고 세수할 때마다 들여다봤다고 한다. 매번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려는 다짐이다. 하루가 새로워지려면(苟日新), 나날이 새롭게 하고(日日新), 또 새롭게 해야 한다(又日新)는 뜻이다. 탕왕은 30여 년의 긴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거나 타락하지 않고, 늘 어질고 반듯한 임금으로 역사에 남았다. 그 까닭은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매 순간을 새롭게 보는 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업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매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훌륭한 인생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으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비로소 나타나는 법이다. 조금 더 잘해보려는 진지한 의도와 노력이 있을 때,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조직도 건강해질 수 있다. '늘 깨어 있는 삶'



이라는 좋은 습관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현재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의는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과거나 미래로 방황하는 경우기 많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자신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의를 빼앗기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스마트폰, 대화할 때, 화가 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음챙김 훈련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기는 사례를 살펴보자. 요즘은 기술 발전 덕분에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삶은 날로 윤택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디지털 기기다. 일상의 삶은 물론 직정에서도 모든 업무는 이미 스마트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갈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분리불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의한 마음놓침 상태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아주 강력한 '주의력 도둑'이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나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주의력 도둑을 잡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의도적으로 마음챙김으로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하루 일정을 시작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업무에 몰입하는 '디지털 디톡스' 습관을 길러보자.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소리나

스마트폰 치우고 일에 집중
대화에선 경청의 습관 도입
화가 날땐 객관적 바라보기
의도적 마음챙김 효과 높아

불빛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해받게 마련이고,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분산되면 결국 어떤 일에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일단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불안할 수 있다. 자꾸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저 가만히 그런 나를 바라본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와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침묵 속에서 잠시 자신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라. 지그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간헐적 디지털 디톡스' 시간은 언제 가져도 무방하다. 아침 업무 시작 전만이 아니라 업무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라도 좋다.

두 번째 사례는 대화할 때이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지낸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심을 다해 온전히 주의를 기울는 것이 쉽지않다. 상대방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비판하고 분석하고 저항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으로부터 주의가 이탈되는 것이다. 이럴 때 "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비판하고 분석하고 저항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대화가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일단 무조건 침묵을 유지한다. 침묵은 외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까지 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대방 말을 공감의 태도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상대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현재에 온전히 깨어서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경청(傾聽)을 넘어 경청(敬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조급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경청할 때는 내용만이 아니라 목소리의 파동과 진동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음색과 목소리 크기, 사용하는 단어, 표정과 몸짓과 눈동자를 빠짐없이 세세히 마음에 흡수한다.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분위기와 의도 등도 주의 깊게 경청한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할 말을 머릿속에 미리 준비하거나 연습하지 않는다.

대화 도중에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가 바로 마음놓침의 순간이다. 그럴 때는 말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신체 감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본다. 열이 나거나 긴장감, 답답함, 떨림 등의 여러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에 주의를 두고 찬찬히 바라본다. 그리고 그 부위로 호흡을 해본다. 숨을 들이쉴 때 그 부위로 숨이 들어간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그 부위에서 숨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쉰다. 이렇게 마음챙김으로 나의 온 마음을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그에게 나의 진심이 전해지게 마련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결과도 달라진다. 결정적으로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판단하기 전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를 살펴보자. 우리가 주의력을 가장 쉽게 잃어버리고 마음이 쉽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순간은 화가날 때일 것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화나 분노를 경험하는데, 속수무책을 화에 휩쓸려 화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 이때 가장 먼저 화가 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수치화하는 노력을 해보라. '소노(小怒)'인지 '중노(中怒)'인지 '대노(大怒)'인지 '극대노(極大怒)'인지,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 숫자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눈을 감는다. 눈동자가 눈꺼풀로 덮이면 눈앞에 펼쳐지는 어두운 공간을 주시한다. 다시 눈동자에 힘을 풀고 잠시 쉬어본다. 이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는 심호흡을 세 번 한다. 그런 다음 몸의 느낌을 살펴보고,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열감인지 긴장감인지 떨림인지 답답함인지, 그 느낌의 실체를 파악한 뒤에 그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가만히 살펴본다. 어떤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잠시 손을 올려놓아도 좋다. 그 느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바라본다. 그다음에 다시 심호흡을 세 번 한다. 화는 내가 아니다. 화는 내가 경험하는 것일 뿐이다. 화가 날 때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낸 본인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 무엇 때문에 화가 일어났는가?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화를 내면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가? 그 후에 화가 난 정도를 1부터 10까지 다시 수치화해보고, 처음과 비교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자신을 위로해준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호흡하는 것을 느껴본다. 손의 압력과 온기도 느껴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본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를~,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몸과 마음이 고요하기를~,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천천히 하면 3분정도 빠르게 하면 1분이면 충분하다. 가장 강력한 주의력 도둑인 화나 분노도 이러한 의도적인 마음챙김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챙김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악이든 선이든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굳은 신심을 갖고 싶어요

질문 평소에는 주인공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큰일에 부닥치고 보니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굳은 신심으로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하고 싶은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그런데 나를 믿는 것 말입니다, 믿는 것은 아픈 것을 나을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걸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나쁘든 좋든 아버지이듯이, 어머니가 못났든 잘났든 하여간에, 못 배웠든 병신이든 내 어머니이듯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는 다 대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이름만 부르면서 요거 한 가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건 참 더디죠. 앞에 닥친 거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고 '너 아니면 해결 못 한다.' 하고선 마음을 조급하게 두지 말아야죠. 안 되든 되든 일단 맡겼으면 '난 죄가 없어, 일단 맡겼으니까.' 하고 그냥 던져두는 거죠.

어떤 스님이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짚고 선 물을 건너가는데 아, 어느 마을에 불이 나서 그냥 막 타오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가 뛰는 게 없이 주장자를 물에다가 척 치니까, 그 물이 구름으로 화(化)해서 전부 비로 내리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 불이 그냥 단번에 꺼지더랍니다. 그쯤은 돼야죠. 허허허. 그러니 몸뚱이가 아무리 뛰어 봤자 벼룩입니다. 저 허공에서 비행기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해 보세요. 몸뚱이가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스님이 가만히 보니 비행기 조종사가 몸이 불편해서 술 한잔을 마셨는데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조종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종사 속으로 들어가서는 "에이,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러고는 콱 찔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야단났거든요. 그래, 그냥 수습을 한 거죠,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수습을 해 가지고 괜찮았답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하나가 그대로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선장에 꿰여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같고요. 선장이 끌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배를 탄 중생들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험한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감과 같다,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선장이 잘 이끌고 가는 거를 믿지 못하고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에 있는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하고 안에서 뛰면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도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이 배가 몸뚱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파도가 치든 말든, 배가 엎어지겠으면 엎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딱 그냥 '어허, 내가 공했는데, 배를 탄 거는 어딨으며 배를 안 탄 거는 어딨겠느냐! 파도친 거는 또 어딨겠느냐!'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빙긋이 웃음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사히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부도가 났네 뭐가 났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몰랐을 때에 부도가 나게 해 놓은 거를 어떡합니까? 수습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주인한테다 다 맡기고, 하늘이 무너져도, 회사가 다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하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하고 가는 거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사십니까? 자식이 지금 저기 물에 빠져서 둥둥둥둥 떠내려간다, 부모가 둥둥둥둥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그 자식도 건지고 부모도 건지지,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같이 다 죽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대요. "어머니가 고생고생하며 사시다가 늙어도 고생을 면치 못하고 애를 쓰면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아도 그냥 그 어머니만 건지지, 그 어머니의 시자는 건지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이 떠내려간다 이럴 때는 아직도 좀 시자 노릇을 할 테니까, 그 몸뚱이가 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와서 건지게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는 것도 건지게 돼서 살게 되고, 깔려 죽을 것도 다 살게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의 놀이가 아니라면 절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절대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임신을 해서 별성을 낳을 때에 수없이 낳고 수없이 들이고, 또 수없이 나도 중심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이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교 삼아, 남들도 절에 다니니까 나도 다녀 보자 이러고 그냥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밥 먹는 거를 필수적으로 먹듯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 탓이고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고, 내가 변소간엘 가든지, 똥 둑간엘 가든지, 허허허, 똥 재어 놓는 데 있죠? 그런 델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는 있는 것이지 깨끗한 데를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되려고 하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마음에다 맡겨라. 이왕 맡겼으면 심부름꾼은, 즉 말하자면은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냥 뭐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지 말아라. 왜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하인이 따지느냐. 그러면 종 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림 · 최주현

급한 일보다 마음공부가 우선인가요?

질문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도움받으려고 절에 갔더니 스님께서 마음공부만 하라 하시더군요. 마음공부를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지금은 당장 눈앞의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상황인데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공부가 우선인지요?

답변 타의에서 구하면 이익이 없습니다. 뭐든지,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어떤 우환, 가환, 병…. 또 병도 그래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의학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많은 까닭에 어떤 걸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끊어 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시급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르고 '나는 지금 급해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어서 왔는데 주인공 찾으래. 저이는 저 남의 급한 걸 모르니깐 그렇지 그래, 저 말이 나와?'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를 당신네들이 모르니깐 그렇지,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안다면 내 주인공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라 이겁니다. 모든 일체 만법은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우환, 가환, 병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용광로에 놓는 셈이나 마찬

☞ 22면으로 계속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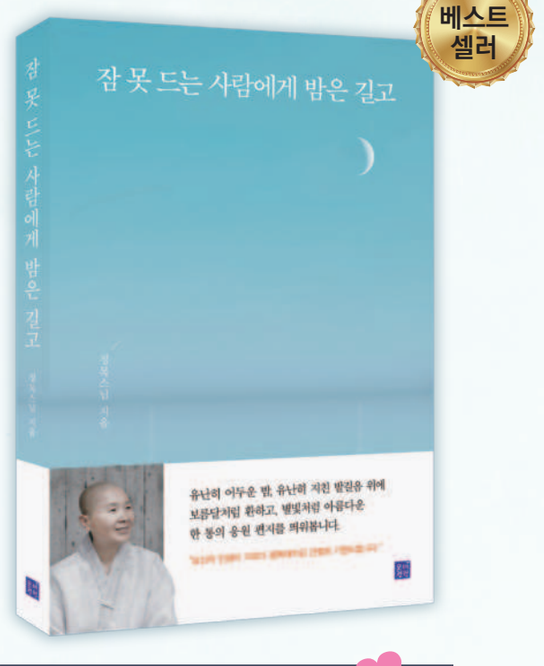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 21면에서 계속

가지다. 그러면 새로 생산될 건 생산되고 바로 녹여 버리는 건 녹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환을 면하고 우환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넓히면 그 넓힌 그 마음이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때에 내 근본의 인간이 거기에서 뚜렷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공부할 새가 뭐 어딨느냐고 그러겠죠. 아니, 그게 바로 공부라는 이름이 아닌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거, 그런 거 저런 것을 다 맡겨 놔야지 그것이 녹아 버리지, 만약에 나로부터 생긴 건데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면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존께서도 육 년 동안 앉아서 그 모든 것을 고행하실 때 모두 항복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항복받은 것은 왜냐. 내 몸의 중생들, 모든 것이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그게 모습을 바꿔서 자꾸 앞에 탁탁,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걸 부처님께선 '아,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억겁을 통해서 살던 그 습의 모습을 다 항복받은 거죠. 이 원점 한 점에다가, 입자 하나에다가 그냥 모두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 항복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항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지탄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온 거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다, 이건 이유일 뿐이에요.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 내놔야 모두 그것이 아주 똑바로 철두철명하다고 하지만 철두철명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부터 철두철명해야 바깥으로도 철두철명한 거예요.

내가 안으로 기필코 눈이 밝고 청림하고 참, 오고 감이 없이 그 오관을 다, 다섯 가지를 내가 부릴 줄 알아야, 소소영영하게 철두철명하게 찰나찰나 응용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참인간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이 자원에 있다 이겁니다. 모든 건 거기에다가, 거기서 한 일이니까 거기에 놔라. 그런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나온 어떠한 잘못,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거라고, 거기서 한 거니깐 거기다 놓는 거뿐입니다.

우리가 인간 하나다 해도 하나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 하나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모여서 사람이 됐을까요? 중생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부처가 하나 났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그 속에 중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중생이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성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다면 그 중생들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 중생들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이 한데 모여서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나왔다면 그것을 이끌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 수만 억겁을 거치면서 생활하던 그 습의 모습, 그것들이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한데 모인 거거든요. 뭉친 거거든. 뭉쳐서 한 사람이 생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억 개가, 억만 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이건 무시하고, 내 속에 자기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일꾼들은 무시하고 자기 사장, 즉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그 하나에서 자기가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부분만 폐허가 돼도 자긴 죽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다.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하는 것도 위로는 자기 자부처와 더불어 한자리한 부처님을 위로 모시고, 아래로는 자기 중생을 제도할 줄 알아야 네 중생 내 중생이 따로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내 중생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이 네 중생 내 중생이 어디 따로 있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중생을 모르고 내 중생을 이끌어 갈 수 없을 때엔 네 중생 내 중생이 아주 낱낱이 수만 개, 억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억만 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인과, 응보, 유전 이런 것이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한 거만치, 그냥 몇 년에 어떤 게 나온다 이런다면 일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당대에 나올 수도 있고 2대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야, 이건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건 누구의 짓이냐 이겁니다. 자기가 한 거만큼입니다. 자기가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 대신에 악을 녹이려면, 인과를 녹이려면, 유전을 녹이려면, 업보를 녹이려면 바로 내가 한 거마저도, 내가 잘했다는 거마저도 놔야 그것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 얼마나, 만약에 피가 많다면 피가 다 녹았을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 우주가 전부 한 피이기 때문에 아마 말라 없어지지는 않았을 테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해서 낱낱이 참 주저주저하고 '야, 이렇게 된 도리에서 내가 이러니까 요거 좀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걸린 겁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시급해요. 이게 놓는 거부터, 맡겨 놓는 거부터, 믿는 거부터, 물러서지 않는 거부터 이게 배워야 그것이 다 홀랑, 나중에는 다 점차적으로 '어, 언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젠 약도 다 필요 없네. 아이고,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어마, 어느 때 보니까 웃고 살게 됐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업보의 인연줄이 없어야 바로 우리가 웃고 살 수 있고, 바로 평화롭고 항상 봄처럼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항상 봄바람이 불면 그 보리이삭이 익어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보리밥을 해서 고추장에 비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이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를 곯리지 않고 항상 사시사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잘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되려고 하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마음에다 맡겨라.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를 뿐이지 왜 잘됐느니 못됐느니 따지느냐.
그러면 종 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미리 예언해 주시지 않는지

질문 요즘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전쟁 등 참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깨달은 도인이라면 앞으로의 일을 다 예견할 수 있을 텐데 왜 미리 예언을 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많은 큰일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 모든 것이 공(空)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세심(三世心)을 일심(一心)으로 뭉쳐서 공 안에다 넣어라.' 이러는 거는 일체 삼세가 다 공했으니까, 그 공 안의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모두 놔라 이러는 겁니다. 거기 '한마음' 이러면 벌써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소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럴 수도 있고, 내일 이랬다가 모레 저럴 수도 있고, 허허허, 아니, 바꿔 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되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언자는 아예 소인이면서도 도둑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컵을 여기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여기 있다'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잠시 후에 이 컵을 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한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가 정말 있어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한 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께 걸린다면 예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는 소인의 행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본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한 번 들은 게 그대로 있습니까? 종소리 나는 거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먹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귀에다 넣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언을 못 합니다. 종소리가 금방 났다 금방 멎었다 하는데, 어떻게 종소리가 난다고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종소리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종소리가 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소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모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움이 난다, 뭐가 이렇게 생긴다, 또 뭐가 잘못된다 이런 거를 미리 알아서 말하기 이전에, 그거를 막아서 될 일이라면 말없이 막는 것이 옳고, 또 그것이 해서 좋을 일이라면 좋게 이끌어 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렇게 예언을 하거나 내가 한다고 하지는 말아야죠. '내가' 라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알았다'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생명들이 우글우글해서 그 생명들이 그냥 작용을 해 주니까 지금 그 집이 움죽거리죠, 몸뚱이 집이. 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나온다 그런다면 예언자가 컴퓨터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겠죠. 그런데 그건 예언 안 해도 나와요. 하하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올 건 나오는데, 나와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이 나온다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좇아가지 말고, 컴퓨터가 나왔어도, 지금 입력하는 데에 따라서 컴퓨터가 움죽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입력을 하면 악하게 나올 것이고 선한 것을 입력을 하면 선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또 생활에 따라서, 세계의 활동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계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가 제대로 100% 중용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겠죠.

옛날에 접시비행기가 떴다고 그랬죠? 그거는 마음으로 움죽거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움죽거리는 거는 마음으로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움죽거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라도 철저하게 이 공부가 된다면, 우린 아마 마음으로 컴퓨터를 움죽거릴 수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처럼 새록새록 금방 달라지고 금방 달라지고 이러질 못합니다. 이게 잘못 들어갔으면 금방 고쳐서 금방 행하고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마음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련만, 공부를 영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신계를 탐탁하게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이렇게 움죽거린다는 걸 모르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밖에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구와 어떤 행성이 마구 돌아간다든가 태양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태양이 팽창이 돼서 타 버린다, 뭐, 별 요소가 다 많죠?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배운 사람들은요, 콧방귀 뀌어요, 콧방귀! 그 불의 생명이나 물의 생명이나, 바람의 생명이나, 공기의 생명이 다 일치되고 있으니까요. 이러니 이 공부가 사실은 무궁무진하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하라고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출가, 시대 트렌드 맞춰야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강사 스님과 불자들과 대화 시
'출가자 부재'가 가장 큰 이슈
삼보 중 가장 중요한 것 '승보'
불보, 법보 지탱한 존재기 때문

즐길 문화가 많아진 현대 사회
출가자 감소, 시대 변화 따른 것
시류에 맞춰 승가교육 이뤄져야
재가 포교사 육성 · 활용 추진을

교육 관련 강사 스님들이나 불자들과 대화를 하면, 자주 이슈화된 주제가 '출가자 부재'이다. 필자는 승려 기본교육기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지라 '승가'나 '출가자'라는 단어에 민감하다. 출가자 부재는 불교의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출가자가 감소했는데, 작년에 특히 더 심각했다.

근자에 강의할 때, 삼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청중에게 물어본다. '불법승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자의 대답은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여러 원인이 있다. 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인 데다 밀교화된 점, 인도 종교는 모두 카스트 계급을 인정하는데 불교만 이 제도를 거부한 점, 승려의 사유재산 문제 등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또 8세기 이후부터 13세기까지 회교도 침입으로 사찰이 파괴당하고 승려가 살해된 점이다. 인도불교가 사라진 큰 요인은 회교로 인해 승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스리랑카도 승려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었다.

기원전 2세기에 마힌다 장로가 입국하면서 스리랑카 불교가 시작됐다. 적어도 천년 이상을 존속했는데, 10세기에 인도에서 무력 침입하면서 승려들이 살해당함으로서 불교 교단이 완전히 사라졌다. 수십여년 지나 위자야바후(1055~1110)왕이 새 왕조를 세우고, 불교 승단을 정립했다. 스리랑카 왕은 미얀마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승려를 초청하고, 청년들에게 출가를 장려하면서 다시 승가가 부활했다.

앞에서 필자가 의문을 던졌던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승보'이다. 승보인 승가는 불보와 법보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존재들이다. 안타깝게도 출가자는 매년 감소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옛날 고대에는 인생을 4주기로 나누어 바라문이나 왕족들의 출가는 일상 문화였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만해도 왕자 출신 승려들이 많았다. 이런 원인에는 〈법화경〉이나 〈유마경〉 등 대승경전에 왕족 출가가 등장하면서 엘리트 문화적인 기류를 형성했던 것으로 본다.

당나라 때, 과거시험 보러 가는 유생들이 '선불장(選佛場, 부처에게 선택되는 것)'이라는 단어만 듣고도 인생길을 바꿔 출가했다. 그 대표가 단하 천연(739~824)과 방거사(정식 출가자 아님)이다. 또 마조의 제자인 오설 영묵(747~818)도 과거시험 보러가는 도중, 선불장이라는 말에 출가했다. 중세 때까지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고급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고, 이와 동반해 다수의 출가자가 배출됐다. 고대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의 사찰 대중이 4~500명이었다. 필자가 출가할 때만해도 한 해 출가자가 500여명이었다.

출가는 옛날 다양한 문화가 없을 때에 르네상스를 누렸다. 물론 출가자 부재는 불교만이 아니다. 특히 올해 가톨릭 신부들도 공부하는 교육기관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제 과거 이야기는 접고, 미래의 대안을 찾아보자.

출가자 부재는 시대적인 문화 흐름 속에 있다. 현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발달된 시대이다. 즉 출가자 부재는 '문화적인 변화'라고 본다. 군대도 군인들이 폰을 허용하는 시대로 변화됐다. 옛날 상황에 고착해 출가자를 교육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 시대 문화 기류에 발맞춰 승려 교육이 되어야 하며, 현대적인 방식이나 삶이 도입돼야 한다. 승려가 부족하면, 재가 포교사라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님 법이 흘러야 한다는 점! 간절한 마음이다.

社 說

인도 분황사, 한국불교 상징 거듭나길

조계종이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한 분황사가 한국불자들의 마음에 벽찬 환희심을 전하고 있다. 그간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는 마하보디 사원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사찰 220여 개가 운영돼 왔지만, 한국불자들이 인도 성지 순례에서 참배할 한국사찰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늦게나마 한국사찰이, 그것도 마하보디대탑에서 직선거리 300m 위치에 건립됐다는 소식에 불자들의 관심이 높다.

분황사 대웅보전의 가장 한국다운 빼어난 면모, 그리고 그곳에 봉안된 삼존불의 모습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앞으로 한국불교 위상을 드높이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분황사는 또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불자들의 순례와 수행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불자들이 부처님 성지를 참배하기 전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한다. 여기에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의 원력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보건소도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의미 또한 남다르다.

분황사 건립은 한국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성사됐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첫 번째 결실이라는 점도 적지 않은 감동이다. 통도사 청화문도회가 부지를 제공했고 설매 · 연취보살이 거액을 희사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불자들이 불사에 원력을 보탰다.

그렇기에 분황사가 부처님 성도지에서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통해 인도를 성지순례한 한국불자라면 누구나 분황사를 참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하길 발원한다.

사부대중 의지 확인한 전북불교회의

전북불교의 향후 100년을 위해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북불교 백년대계 정책기획단(단장 평상)이 지난 5월 21일 전주 혁신도시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첫 모임을 가진 것이다.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입적한 월주 스님의 뜻을 잇는 태공문도회와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마련했다.

그동안 본격적인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교가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불자들이 힘을 모은 자리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재가자들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격이 없는 토론을 이어갔다.

일찍이 부처님은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발심하고 출가하고 수행하였으며, 성도하고 전법하고 열반하였다. 어느 한 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한국불교, 종단, 사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자 뿐만 재가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작은 역량들을 모아 이러한 의식들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너나 잘해"의 비협조적 태도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울이 시냇물을, 시냇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작지만 소중한 생각들을 모아 나가야 한다.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그런 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이러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원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⑤ 드라마 '파친코'

모진 세월 견딘 모정 이야기

파친코(Pachinko)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장편소설인 동시에 그 소설을 극화한 애플 TV+의 드라마다.

필자는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고, 이어서 소설을 읽었다. 원작은 1대인 양진 부부, 2대인 선자와 그녀의 애인인 고한수, 그녀의 남편인 백이삭, 3대인 선자의 아들인 백노아. 백모자수, 4대인 백솔로몬의 이야기가 시대 순으로 전개되는 반면 드라마는 선자와 백솔로몬의 이야기가 구심점이 되어서 교차시점으로 전개되면서 4대의 서사를 담고 있다.

드라마의 교차시점이라는 전개방식은 양진, 선자, 경희라는 세 여성이 격동의 근 ·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겪어야 했던 질곡의 삶과 선자와 그녀의 자손인 자이니치의 삶을 묘파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편집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세르지오 레오네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 비견할 만했다.

파친코의 압권은 역사의 굴레와 비극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초연하게 역경을 헤쳐 나가는 여성 캐릭터들이다. 양진에서 선자로 계승되는 주요 여성 캐릭터들은 자연이 지닌 모성(母性)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빈한한 집의 딸로 태어난 양진은 팔려가듯이 언청이에 절름발이인 훈이와 결혼한다. 남편과 함께 하숙집을 운영해나가는 양진은 무당을 찾아가 "이번만큼은 아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무당이 굿을 한 뒤 태어난 아이가 선자다. 장성한 선자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부산의 수산물 중개상인 한수와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임신한다. 선자는 "허리가 뽀사지는 한이 있어도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깁니다"라며 마음을 다진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인 이삭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이삭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가서 자이니치의 삶을 살아간다.

파친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뎠다. 가족들은 견뎠다"는 내레이션으로 수미쌍관을 이룬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조선 하층민, 일본의 자이니치들에게는 삶은 인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선자와 복희는 녹음(綠陰)의 나이에 헤어져서 낙엽(落葉)의 나이에 해후(邂逅)한다.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 복희의 모습은 처연하다 못해 숭고할 지경이다.

"세상사는 거를 꿈속에서 노는 거 모냥 사는 사람들이 있제. 마, 그런 사람들은 몬버텨낸다"는 복희의 대사는 드라마의 수미쌍관을 이루는 "그들은 견뎠다"는 내레이션과 의미상 일맥상통한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 하나는 견딜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견딜 줄 안다'는 것은 불교수행인 인욕(忍辱)에 해당한다. 인욕은 참는다는 의미와 함께 욕됨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인욕의 하나인 '유순인(柔順忍)'은 사람이 항상 참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조복되어서 역경이나 순경을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일컫고, '무생인(無生忍)'은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을 일컫는다. 무생인에 이르면,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허황함을 깨닫게 되므로 성낼 일도 없고 참을 일도 없게 된다.

그러고 보면, 파친코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 캐릭터들은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무상의 지혜를 깨닫고 타자에 대한 자비를 키워가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2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함께하니좋다
단체 및 개인 상담문의 02-365-7747
모두가 기다린 성지순례,
다시 함께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라오스 6일
#핵심코스로 즐기는
#라오스의 과거와 미래
방콕/파타야 5일/6일
#화려한 랜드마크
#천혜의 자연환경
몽골/바이칼 8일
#드넓은 푸른 초원
#시베리아의 푸른 눈
캄보디아 5일
#세계문화유산
#천년의 신비
인도 9일
#상상보다 더 놀라운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8일
#신성한 유적지
#반짝이는 인도양의 나라
하와이 7일
#황금빛 태양 아래
#편안한 휴식
터키 9일
#동서양의 교착지
#찬란한 역사의 땅
이탈리아 9일
#유구한 문화유산
#반짝이는 지중해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 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